

KEPCO

2026 March
Vol.633

균형

COVER STORY	4
몬드리안의 미학으로 배우는 삶의 균형	
SPECIAL THEME	6
붉은 화마 속 전력의 맥박을 지키다: 산불 재난과 한전의 사명	
TRANS : MISSION	10
SEDA, 전력망 운영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혁신 솔루션	
ISSUE 1	14
전력망 적기확충을 위한 실행 중심 혁신 로드맵을 그리다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가속화 마스터플랜	
ISSUE 2	16
우리가 전하는 에너지는 '빛' 그 이상입니다!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에게 희망을 전하는 한전의 에너지 효율화 사업 이야기	
이야기 전력사	18
전차, 지금 우리에게 돌아오다	
SIGHT	20
미래를 바꾸는 기술의 메카 고창전력시험센터를 가다	
KEPCO NEWS	24



KEPCO
2026 MARCH VOL.633

통권 633호 2026년 3월호(월간)
등록번호 나주 마00003
발행일 2026년 3월 3일
발행인 김동철
편집인 권정주
편집 한국전력공사 홍보처 (061)345-3115, 3125
주소 (우)58222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기획·디자인 ㈜이팝
인쇄 한결엠
창간일 1961년 8월 31일



몬드리안의 미학으로 배우는 삶의 균형

글 이은화 미술평론가, 『사연 있는 그림』 저자

기술의 시대, 균형을 갈망하다

기술이 사유를 대체하는 시대다. 프롬프트 하나면 그럴듯한 이미지와 영상이 즉각 생성된다. AI 활용법을 익혀야 하고, 건강도 관리해야 하며, 재테크 정보도 놓칠 수 없다. 인간관계까지 신경 쓰다 보면 하루는 숨 돌릴 틈 없이 흘러간다. 편리를 약속했던 기술과 정보의 발달은 역설적으로 우리의 시간을 더 촘촘히 점유한다.

그래서일까. 우리는 매일 ‘균형’을 갈망한다. 일과 삶의 균형, 감정의 평온, 관계의 안정. 그러나 균형 잡힌 삶은 언제나 도달하기 어려운 과제처럼 느껴진다. 모든 것이 넘치고 빠른 시대일수록 균형은 타고나는 감각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단련해야 하는 태도에 가깝기 때문이다. 과연 이 혼란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세우는 일은 가능한가.

이 질문에 대해 피에트 몬드리안(Piet Mondrian)의 그림은 뜻밖의 힌트를 건넨다. 빨강, 노랑, 파랑의 삼원색과 수직·수평의 검은 직선으로 이루어진 화면은 지극히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세계의 보편적 질서와 균형에 대한 사유가 담겨 있다. 몬드리안은 최소한의 형태와 색채만으로도 복잡한 감정을 정화하고 순수한 조화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평생 자연의 겉모습을 하나씩 지워가며, 회화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상태, 즉 ‘균형의 본질’을 탐색했다.

덜어냄으로 완성한 질서

몬드리안이 처음부터 추상화를 그렸던 것은 아니다. 1872년 네덜란드에서 태어난 그는 풍경과 나무를 충실히 묘사하는 화가로 출발했다. 그러나 점차 눈에 보이는 대상보다 그 이면의 구조에 더 매료되었다. “자연을 닮게 그리는 것이 과연 예술의 본질일까?”라는 질문은 그를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었다.

파리에서 입체주의를 접한 이후 그의 화면은 급격히 단순해졌다. 형태는 해체되었고 색은 줄어들었다. 결국 남은 것은 점, 선, 면. 그중에서도 수직선과 수평선은 그의 조형 언어의 핵심이 된다. 몬드리안은 이를 서로 대립하면서도 균형을 이루는 두 힘으로 보았다. 위와 아래, 좌와 우가 팽팽하게 맞서는 긴장과 조화. 어느 한쪽으로도 기울지 않는 구조적 안정. 이것이 그가 말한 질서와 균형의 본질이었다.

대표작 〈빨강, 파랑, 노랑의 구성〉(1930년)¹은 이러한 사유가 응축된 작품이다. 삼원색의 색면과 검은 직선이 화면을 과감하게 분할한다. 언뜻 보면 쉽고 단순하다. 누군가는 “나도 그리겠다”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단순함은 수많은 삭제와 수정 끝에 도달한 결과다. 몬드리안은 단 하나의 선 위치를 정하기 위해 며칠씩 고민했고, 같은 작품을 수십 차례 고쳐 그렸다.

균형은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 불필요한 것을 과감히 버리고, 남겨야 할 것을 끝까지 지키는 선택의 반복 속에서만 형성된다. 그의 화면이 차갑고 계산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감정을 통과해 구조와 본질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치열한 몰입과 고독한 사유가 그 안에 응축되어 있다. 몬드리안에게 예술은 세상의 혼돈을 재현하는 일이 아니라, 혼돈 속에서 질서를 발견하는 작업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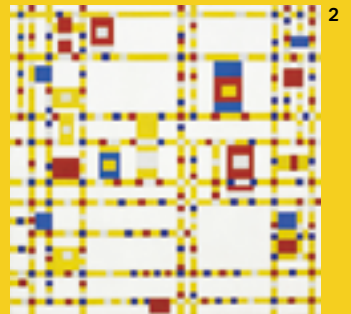
리듬 있는 균형, 그리고 오늘의 나

제2차 세계대전은 그를 뉴욕으로 이끌었다. 격자형 도시 구조와 재즈, 특히 부기우기의 리듬은 그의 작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말년의 걸작 〈브로드웨이 부기우기〉(1943년)²는 더 이상 정적인 균형에 머물지 않는다. 노란 선들이 격자를 이루고, 작은 색면들이 박자처럼 화면을 진동한다. 질서는 유지되지만 화면은 살아 움직인다. 현재 뉴욕 현대미술관에 소장돼 있는 이 작품은 변화와 속도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중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균형은 멈춰 있는 상태가 아니라, 어떤 변화나 움직임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힘이라는 사실을 일깨운다.

오늘의 우리는 몬드리안이 살던 시대와는 다른 방식의 혼돈 속에 있다. 정보 과잉, 속도 경쟁, 끊임없는 비교. 더 많이 배우고 더 빨리 움직이라고 요구받는 사회에서 중심은 쉽게 흔들린다. 이럴 때 그의 그림은 조용히 말을 건넨다. 균형은 더하는 데 있지 않다고. 오히려 빼는 데서 시작된다고.

하루의 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한 가지를 정하는 일. 모든 관계를 만족시키려 애쓰기보다 나를 지키는 선을 분명히 긋는 일. 몬드리안이 화면 위에 수직과 수평을 세워 중심을 만들었듯, 우리 역시 삶의 기준선을 세워야 한다. 균형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내부의 선택에서 비롯된다.

그의 그림을 다시 바라보자. 단순한 화면은 오히려 깊은 질문을 던진다. 나는 무엇을 덜어낼 것인가. 무엇을 끝까지 남길 것인가. 직선 몇 개와 세 가지 색만으로 세계의 질서를 그려낸 화가처럼, 우리 역시 복잡함을 걷어내고 단 하나의 기준으로 오늘을 지탱해 보는 건 어떨까.



1
Piet Mondrian, Composition with Red, Blue and Yellow, Oil on canvas, 45cm×45cm, 1930, Kunsthaus Zürich, Zürich

2
Piet Mondrian, Broadway Boogie Woogie, Oil on canvas, 127cm×127cm, 1943, Museum of Modern Art, New York

W I L D F I R E D I S A S T E R

붉은 화마 속

전력의 맥박을 지키다:

산불 재난과 한전의 사명

대한민국 국토의 약 63%는 푸른 산림으로 덮여 있다. 이 울창한 숲은 맑은 공기와 휴식을 선사하지만, 전력 공급을 책임지는 우리에게도 대한민국 전력망의 핏줄인 송전선로가 지나는 거대한 현장이기도 하다.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에서 도심의 불을 밝히기까지 거쳐야 하는 송전철탑의 약 78%인 3만 2천여 기가 바로 이 산악 지대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산림과 전력설비는 이처럼 숙명적으로 공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그러나 기후 위기로 인해 매년 대형화·일상화되고 있는 산불은 이 평온한 공존을 위협하고 있다. 전력설비는 국가 경제와 국민 삶의 근간이기에, 불길의 산을 타고 번질 때마다 우리는 전력계통의 안녕을 위해 총력을 다해 사투를 벌이고 있다.

글 조수영 송변전운영처 송전운영실 차장

데이터로 살펴보는 산불의 위험

최근 10년간의 통계를 분석해 보면 산불의 위험은 결코 가볍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연평균 529건의 산불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전력 설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송전선로 정지를 일으키는 사례도 연간 약 9건에 달한다. 특히 지난해 3월 발생한 영남권 대형 산불은 우리에게 뼈아픈 교훈을 남겼다.

무려 10일간 지속된 역대 최악의 산불은 축구장 14만 6천여 개 면적에 달하는 10만 4천 헥타르를 잿더미로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송전선로가 19회 멈춰 섰으며, 경북 지역 송전선로의 동시다발적인 정지로 변전소 2개소마저 정지하여 약 9만 2천 세대가 어둠 속에 갇히는 정전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는 단순한 자연재해를 넘어 전력망이라는 국가 핵심 인프라가 얼마나 거대한 외부 위협에 직면해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였다.

산불은 왜 전력망을 멈추게 하는가?

산불이 전력설비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히 '불에 타는 것' 그 이상이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고장 원인은 바로 '절연 파괴(Flashover)' 현상이다.

연기로 인한 선간 단락 송전선로의 전선 간 절연을 유지하는 물질은 바

로 공기이다. 154kV 송전선로는 약 4m, 345kV의 경우는 약 8m의 전선 간 거리를 두고 있으며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절연 파괴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화재 시 발생하는 질은 연기와 탄소 입자(Soot)는 공기 중의 절연 성능을 급격히 저하시킨다. 이 연기 입자들이 일종의 전기가 흐를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하여 전선과 그 아래의 수목, 혹은 전선들 사이에서 합선(단락) 사고를 유발하고 선로는 자동으로 차단된다.

고온에 의한 물리적 변형 수천 도에 이르는 화염의 열기는 알루미늄 전선을 연화시키거나 단선시킬 수 있다. 화염 중심부의 최고 온도는 약 1,200°C이며 주변 연기의 온도 역시 약 600°C에 이른다. 전선이 화염에 노출되면 전선 온도는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고 열팽창으로 전선이 늘어나게 된다. 이렇게 처진 전선이 선로 아래의 수목과 접촉하게 되면 이 역시 선로 정지로 이어진다. 또한, 지속적인 가열로 전선과 지지 구조물인 애자를 과손시켜 설비 자체를 불능 상태로 만들 수도 있다.

국내 전력망은 대부분 우회 선로를 확보하고 있어 단일 선로 정지 시에는 전력 공급에 큰 지장이 없도록 설계되어 있다. 하지만 산불은 광역적인 재난이다. 다수의 송전선로가 동시에 불길에 휩싸일 경우, 계통 전체가 마비되는 '블랙아웃(Black Out)'의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한다. 우리가 산불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산불에 의한 송전선로 고장 예시



① 산불로 인한 연기가 '전선 간 전기가 흐르는 매개체' 역할을 하여 고장이 발생하며, 대부분의 산불영향 선로 정지가 이에 해당



② 산불 화염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전선 손상 등 설비 피해로 고장 발생

2025년 화마(火魔)에 맞선 한전의 총력 대응

한전은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전력 계통을 사수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현장 중심의 비상 대응 2025년 영남권 초대형 산불 당시, 본사와 사업소 인력은 물론 협력회사까지 포함하여 연인원 약 7,500여 명을 현장에 투입했다.

	상황근무			현장감시 및 지휘본부 투입			총합계
	본사	사업소	계	한전	협력회사	계	
연인원(명)	413	2,703	3,116	1,900	2,452	4,352	7,468

[2025년 산불 대응 인력 투입 내역]

이들은 24시간 산불 진화상황을 실시간으로 본사 및 사업소 비상상황실과 공유했고, 산불피해 중앙합동 지원센터 및 도청 상황실에 파견되어 지자체와 상호 유기적으로 협업하면서 송전선로 위치 정보를 제공하고 설비 주변 우선 진화 요청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또한, 불길에 갇힌 즉시 산불 피해가 예상되는 636개소의 설비를 점검해 조치했다.

전력계통 특별관리 산불지역 내 송전선로와 변전소의 정지에 대비하여 배전사업소와의 협업을 통해 부하 사전전환 등 신속한 조치로 정전을 최소화했다.

특히, 산불이 근접하는 무인변전소 4개에 대해 신속한 현장 상황판단과 조치를 위하여 유인화 체계로 즉시 전환하여 관리하였다.

산불 진화 자원의 공유 한전은 자체적으로 산불지역제를 전국 거점 변전소에 분산 비축하고 있다. 기존 25톤을 보유하였으나 작년 대형 산불 이후 비축량을 52톤까지 확보하여 비상시 대응역량을 강화하였다. 지난 의성 산불 당시, 한전 보유분 중 16톤을 산림청에 긴급 지원하여 산불의 대형 확산을 막아냈으며, 이 사례는 기관 간 협력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성과였다.

핵심 기반시설 우선 복구 산불 관련기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통신 기지국 181개소와 물자 수송용 터널의 전기설비 등 핵심 기반시설을 최우선으로 복구하였다. 그리고, 한전을 포함한 전력그룹사 차원의 성금 기부와 함께 산불피해 이재민의 조기 일상회복을 위한 이재민 숙소 용 발전차와 재난 구호급식 및 모뎀화 주택 전력공급 등 사회적 책임 완수에도 앞장섰다.

산불에 대비한 선제적 노력

산불은 결코 어느 한 기관 혼자만의 힘으로 대응할 수 없다. 한전은 산불 관련기관과의 견고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산불로부터 전력설비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이행 중이다.



대국민 홍보 캠페인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산불 관련기관과 함께 지난해 187회 이상의 예방 캠페인을 시행하여 국민들이 산불 예방과 전력설비 보호의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올해도 산불캠페인은 지속된다.

주도적 방어체계 구축 산불 진화기관에만 의존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탈피하여 자체 방화선 구축을 위한 살수시스템을 확대 중이다. 현재 강원지역 양양, 동해변전소 등에 설치된 시스템을 이동형 장치로 개선하여 케이블타워, 타 변전소 등 다양한 개소에 탄력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제도 개선 산지에 위치한 변전소의 경우 산불의 피해를 받으면 복구가 장기화될 우려가 높아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현재 「건축법」에 따라 변전소를 포함한 모든 건축물은 5~15%의 면적의 조경이 의무화 되어있다. 변전소의 경우 녹지확보와 경관개선 등 조경목적과의 상관성이 낮음을 근거로 조경 의무 면제를 위해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 중이다.

설비 보강 화재에 취약한 드라이비트로 외벽 마감된 변전소에 대해 외장재 교체 순차적으로 시행 중이며, 화재유입 방지를 위해 변전소의 울타리를 콘크리트 블록담장으로 설치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중선로 케이블의 화재 피해 방지를 위해 보호관 교체와 노출부에 대해 난연테이프로 보강 중이며, 케이블 타워의 부지 내 잡석과 콘크리트 시공을 추진하고 있다.

산불위험지역 특별관리 전력설비로 인한 산불발생 예방을 위해 2025년 9월부터 본사, 전력기자재센터, 전력연구원 등과 합동으로 산불예방 대책반을 운영 중에 있다. 또한, 산불 고위험 지역인 강원, 대구, 경북본

부 24개 지사를 산불예방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산지선로 가공케이블 교체, 지중화, 무부하구간 계통분리 등 산불방지 최우선의 설비보강과 계통운영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여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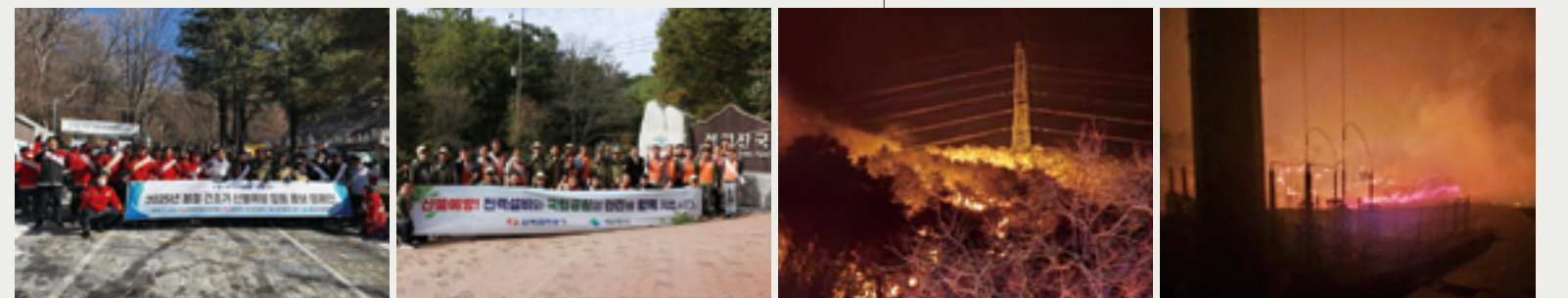
수목관리 강화 수목으로 인한 산불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협업 숲가꾸기 사업', '정부 협업 위해목 제거사업' 정례화 등 지자체, 정부와 함께 수목으로 인한 산불예방체계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빛을 지키는 약속, 중단 없는 전력 공급

전기는 현대 사회의 공기와 같다. 그 공기를 흐르게 하는 혈관이 산림 속에 있고, 우리는 그 혈관을 지키는 수호자다. 산불이라는 거대한 위기 앞에 전력 설비는 취약해 보일 수 있지만, 그 뒤에는 24시간 비상 대응 태세를 유지하며 화마와 맞서는 한전인들의 땀방울이 있다.

산림 보호라는 환경적 가치와 안정적 전력 공급이라는 공익적 사명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 앞으로도 한국전력은 참담 감시 시스템과 관련기관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어떤 재난 속에서도 대한민국이 멈추지 않도록 빛의 맥박을 끝까지 지켜나갈 것이다.

↓ 전력설비 주변의 산불 (2025년 3월 영남 대형산불)



↑ 산불 관련기관들과 함께 산불캠페인에 앞장서는 한전

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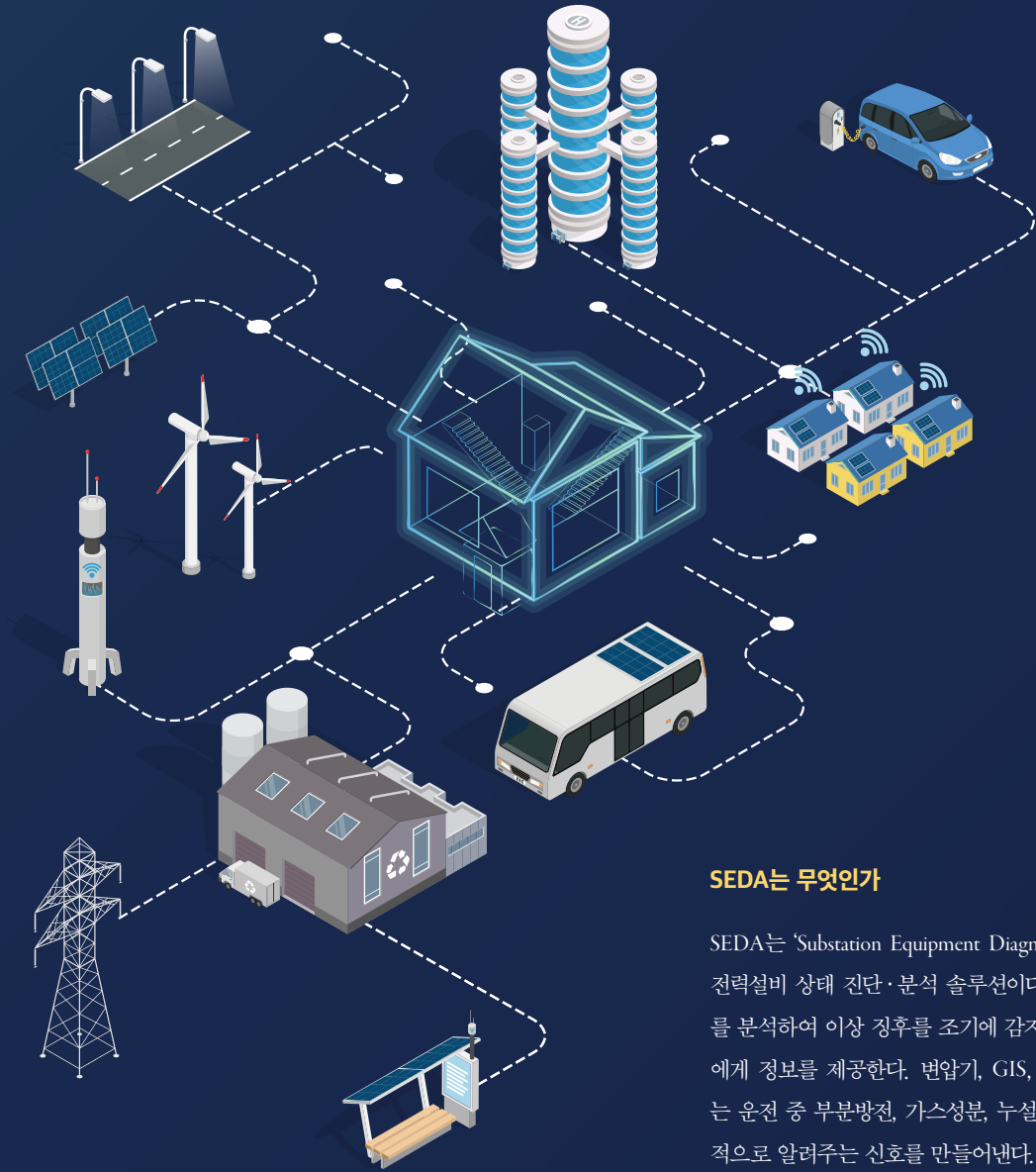
전력망 운영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혁신 솔루션

DA

전기는 평소에 그 존재를 잊고 지내지만, 한순간이라도 끊기면 그제서야 얼마나 많은 것이 전기를 필요로 하는지 실감하게 된다. 산업 현장과 도시의 교통체계, 그리고 AI·데이터센터로 대표되는 초고밀도 전력 수요까지, 전력의 연속성은 국가 경쟁력 그 자체가 되었다.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는 곧바로 가정으로 들어오지 않는다. 먼 거리까지 보내기 위해 전압을 올렸다가, 다시 우리가 쓰기 편리한 전압으로 낮추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때 전압을 바꾸고 전력 흐름을 제어하는 핵심 설비가 바로 송변전 설비이다.

송변전 설비가 멈추면 단순히 기계 한 대가 멈추는 게 아니라 사회 기능의 정지로 이어질 수 있기에, 전력설비 고장 예방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설비는 노후화되고, 전력계통은 복잡해지며, 제한된 시간과 자원 안에서 한전은 더 많은 설비를 관리해야 한다. 사람의 경험만으로 모든 위험을 놓치지 않고 잡아내기 어려운 시대가 된 것이다. 그래서 한전은 실시간 전력설비 예방진단 솔루션인 SEDA를 활용해 고장 예방을 이어가고 있다.

글 김해중 송변전운영처 디지털진단부 차장



SEDA는 무엇인가

SEDA는 'Substation Equipment Diagnostic & Analysis system'의 약자로, 전력설비 상태 진단·분석 솔루션이다. 설비에서 발생하는 전력 데이터를 분석하여 이상 징후를 조기에 감지하고, 그 위험도를 분석해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변압기, GIS, 지중 송전선로와 같은 주요 설비는 운전 중 부분방전, 가스성분, 누설전류 등과 같은 내부 상태를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신호를 만들어낸다. SEDA는 이러한 신호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설비제원, 점검이력 등 유지보수 데이터와 함께 AI 알고리즘을 통해 설비의 상태를 종합 판정하고 있다. 실제 전력계통을 운영하면서 축적한 약 200만 건의 빅데이터 가운데 3만 건의 핵심 데이터를 선별해 AI 알고리즘을 학습하는 데 활용하고, 실험실의 모의신호가 아니라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알고리즘을 고도화하여 진단 및 판정의 정확도를 한층 끌어올렸다.

“ SEDA는 이러한 신호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설비제원, 점검이력 등 유지보수 데이터와 함께 AI 알고리즘을 통해 설비의 상태를 종합 판정하고 있다. ”

기존 방식의 한계점 보완

그동안 설비 관리는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이 기본이었다. 이 방식은 기본적인 안전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지만, 점검 주기 사이에 생긴 문제는 대처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점검을 완료한 다음 날부터 설비 내부에 작은 이상이 시작되어도 다음 점검까지는 발견이 늦어질 수 있다.

SEDA는 이 한계를 실시간 상태관정으로 보완하였다. 즉, 점검 시점의 데이터로 설비를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설비를 판정한다.



SEDA는 무엇을 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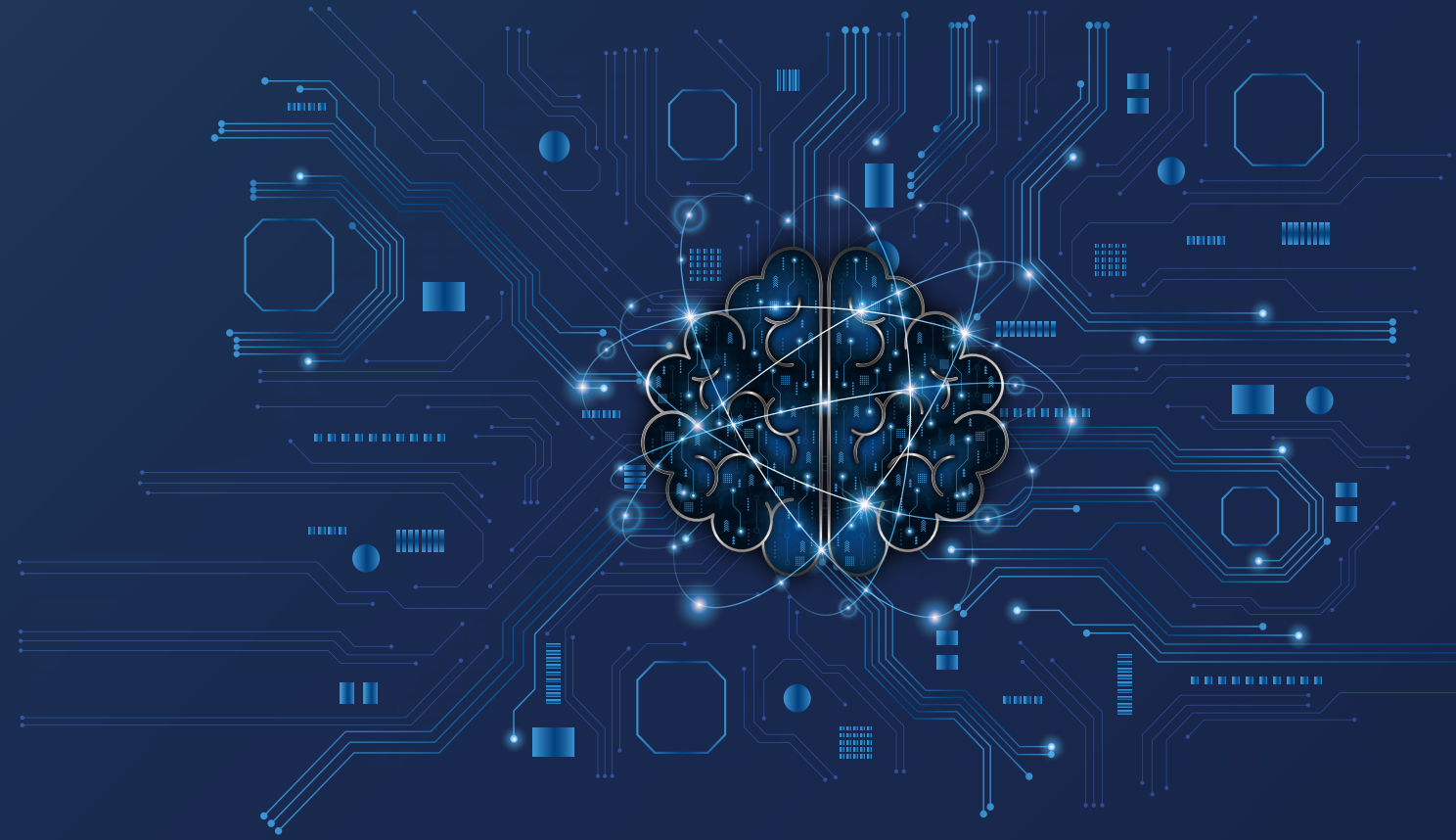
SEDA의 핵심 기능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1 데이터 수집 변압기, 개폐장치 등 전력설비에 설치된 센서에서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데이터를 수집한다. 여기에 설비 제원, 정보, 점검 데이터 등 유지보수 데이터가 함께 더해진다.

2 데이터 분석 수집된 빅데이터는 AI 알고리즘으로 설비 종합 관정을 하는 데 활용된다. 평소와 다른 변화, 악화되는 추세 등을 찾아내고, 그 결과를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보여준다.

3 사용자 중심 표시 복잡한 수치 대신 '정상·관심·주의·이상·심각' 5등급 상태 표시로 우선 확인할 설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이 방식은 고장이 발생하기 전에 원인을 파악하고 조치할 수 있게 하여 갑작스러운 설비 파손이나 대규모 정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낮춘다. 또한 긴급 복구를 줄여 비용도 절감하고, 안전사고 위험도 낮출 수 있다.

SEDA의 데이터는 단순 설비의 이상 유무를 관정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SEDA에서 관정하는 5등급 설비 상태는 전력설비의 투자 방안을 결정하는 데도 이용되는데 교체·보강의 우선순위를 정할지 판단할 때 SEDA의 설비관정 데이터가 중요한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세계가 인정한 기술력: CES 혁신상

SEDA의 성과는 국내에만 머물지 않는다. 매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Consumer Electronics Show)는 우수한 기술을 선발해 혁신상(Innovation Awards)을 수여한다. SEDA는 CES 2026에서 유틸리티로서는 최초로 혁신상을 수상하며 글로벌 전력시장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번 수상은 SEDA가 예방진단의 패러다임을 바꿀 혁신적 솔루션임을 글로벌 무대에서 공인받았다는 의미이다.

해외로 확장되는 SEDA

한전은 고도화된 진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의 전력기기 제작사와 협업을 통해 해외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효성과 협업하여 개발한 'ARPS(통합솔루션)'는 2025년 12월에 말레이시아 실증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또한 2025년 9월에는 글로벌 전력기자재 선도 기업인 독일 MR사와 예방진단 사업화를 위한 MOU를 체결하여 2026년 상반기 기술이전 계약 체결을 목표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처럼 고도화된 진단 기술을 기반으로 세계 시장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SEDA가 추구하는 예방진단의 지향점은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결정을 더 빨리, 더 정확하게 내리는 일이다. 설비의 이상을 선제적으로 발견하고 조치하여 현장의 안전과 계통의 신뢰도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것, 그 과정에서 SEDA는 전력설비 예방진단의 최적 솔루션이 되고 있다.

SEDA의 역사

SEDA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결과가 아니다. 1998년 GIS 부분방전 진단시스템으로 시작하여 2016년 변전소 종합예방진단시스템을 개발하였고, 2021년 실시간 AI진단체계인 SEDA를 완성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전력설비 예방진단 및 상태관정 기술력을 확보했다. 이를 위해 GIS 부분방전 진단시스템에서 SEDA에 이르기까지 지난 30년간 산업·학계·연구 분야 누적 730명의 노력과 협업으로 예방진단 기술력을 완성할 수 있었다.

현장에서 확인된 성과

2021년 SEDA 도입 이후 연평균 16건의 설비 고장을 사전에 막아내며 원자력 발전소와 연계되는 전력설비의 고장을 예방하는 등 누적 1,000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다. 2025년에는 17건의 고장을 사전에 찾아냈고, 2026년 1월에는 신가평 변전소의 전력설비 내부결함을 사전에 적출하여 고장을 예방하였다.

신가평 변전소는 동해안에서 생성된 대규모 전력을 수도권에 공급하는 중요한 변전소이다. 만약 이곳에서 고장이 발생하면 수도권 지역의 전압 강하는 물론, 동해안 대규모 발전단지의 정지까지 이어질 수 있다. SEDA를 통한 선제적 고장 예방이 비용 절감의 차원을 넘어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는 솔루션이라는 점이 여기서 드러난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AI·반도체·데이터센터 등 국가 첨단 전략산업의 성장으로 전력 수요의 증가세는 가파르다. 전력은 산업 경쟁력과 국민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이며, 전력망은 국가 경제의 대동맥이다. 전력 수요 증가 속도와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전력을 생산지에서 수요지로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이송할 수 있는 송·변전 인프라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그러나 송·변전 설비 건설은 입지 확보의 어려움, 복잡한 인허가 절차, 주민 수용성 문제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된다. 이에 따른 전력망 구축 지연은 재생에너지 출력 제한과 산업단지 전력공급 불안으로 이어져 국가 경쟁력 저하로 직결되기에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한전은 'K-GRID 신속 구축 전략 대토론회'를 열고 전력망 적기 구축과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혁신 마스터플랜을 공유하며 에너지 대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글 윤광희 송변전건설단 국가기간망건설실 차장

에너지 전환과 전력망의 전략적 중요성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과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원 구조 개편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및 2035년 NDC 목표(53~61%) 상향 등 재생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기간 전력망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전력공급을 위한 필수 인프라로서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고 안정적 전력공급과 탄소배출 감축을 통해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 성공을 이끌 핵심요소로 주목된다. 특히 서해안과 호남권을 중심으로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가 조성되면서, 이를 수요지로 안정적으로 이송할 수 있는 국가기간 전력망의 적기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이러한 점에서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를 포함한 K-GRID 신속 구축은 정부의 에너지 전환을 뒷받침하는 핵심일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지역 균형발전 실현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재생e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 가속화 마스터플랜 공개

한전은 1월 27일 'K-GRID 신속 구축 전략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기존 건설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전력망 건설을 획기적으로 혁신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단순한 문제인식의 공유를 넘어, 공기 단축을 위한 제도기술 혁신 방안을 종합적으로 모색하고 전사적 실행 의지를 결집하기 위한 자리였다.

특히 전력망 확충이 에너지 정책 성공의 핵심이라는 판단 아래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풍부한 호남권과 전력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을 적기에 연결하는 '재생e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 가속화 마스터플랜'을 이 자리에서 공개했다.

에너지고속도로 가속화 마스터플랜에는 건설제도의 혁신과 새로운 기술도입을 통해 전력망에 필요한 시공자원을 조기에 확보하고 공사기간 지연요소를 제거함으로써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을 적기에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이 담겼다.

제도 혁신 분야에서는 고속도로 유희부지를 활용한 변전소 입지 확보, 송전선로 건설공사 조기 발주를 통한 공기 단축 등 7개 과제를 마련했다. 주요 과제로는 자체·인력·장비 수급 안정화, 건설 및 계약 절차 효율화, 변전소 입지 조기 확보 방안 등이 제시됐다. 특히 토목 SOC와 전력망의 공동건설 확대, 송전선로 조기 발주 제도 개선, 국토 유희부지를 활용한 변전소 입지 모델 등은 공기 단축과 주민 수용성 제고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됐다.

기술 혁신 분야에서는 도심지 발파 소음을 차단하는 '기계식 무진동 수직구 굴착 공법(VSM)' 도입, 기존 대비 용량을 1.5배 확대한 '345kV 대용량 케이블' 개발 등 11개 과제를 발굴했다.

이 과제들은 기존 설비 활용을 극대화하고 신규 설비 규모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설 철탐을 활용한 용량 증대 기술, 가공·지중 연결 설비의 컴팩트화, 대용량 전력 케이블 개발, 지중 송전선로 표준경간 확대 등은 현장 적용 시 공기를 실질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기술로 주목받았다. 또한 조립식 철탐 기초, 저소음·저진동 수직구 굴착 장비 도입 등은 환경 영향 최소화와 시공 효율 향상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전은 이번 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해 평균 13년의 건설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이에 따라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등 전력망을 적기에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 ↑ K-GRID 신속 구축 전략 대토론회
- ↓ 에너지고속도로 적기 건설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김동철 한전 사장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을 향한 실행의 출발점

이번 'K-GRID 신속 구축 전략 대토론회'는 전력망 건설 패러다임을 '혁신·신속·효율' 중심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다. 단순한 전략 공유를 넘어, 'One Team, Move Together'라는 슬로건 아래 전사적 실행 의지를 다지는 자리였다. 김동철 사장은 "재생 에너지 접속 대기 해소와 첨단산업 전력공급은 국가 경제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대한 과제"라고 강조했고, 참석자들 역시 이에 공감하며 각 부문별 역할과 실행 로드맵을 구체화했다.

한전은 이번에 도출된 혁신 과제를 단계적으로 실증·확대 적용해,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를 비롯한 주요 국가기간 전력망 사업의 준공 시기를 앞당길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수용 능력을 조기에 확보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에너지 전환과 첨단산업 성장을 동시에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다. 혁신을 통한 공기 단축과 실행력 강화가 대한민국 에너지 미래를 앞당기는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다.

우리가 전하는 에너지는 ‘빛’ 그 이상입니다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에게
희망을 전하는 한전의
에너지 효율화사업 이야기



어느덧 계절이 바뀌고 있다. 날씨가 변할 때마다 한전의 역할은 더욱 막중해진다. 한전이 공급하는 에너지가 누군가에게는 추위를 녹이는 따스한 온기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삶의 터전을 일구는 소중한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한전이 매일 마주하는 업무 속에는 이처럼 빛나는 가치가 숨어 있다. 특히 오늘은 경제적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과 소상공인분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두 가지 특별한 약속, ‘취약계층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지원 사업’과 ‘소상공인 고효율 기기 지원사업’을 소개하려 한다.

글 오광식·나누리 수요효율처 효율사업실 차장

취약계층의 내일을 밝히는 따뜻한 ‘효율’의 선물 ‘취약계층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지원 사업’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을 때마다 깊은 한숨을 내쉬는 이웃들이 있다. 오래된 가전제품이 전기를 많이 소비한다는 것은 알지만, 당장 새 제품을 마련할 목돈이 없어 어쩔 수 없이 낡은 가전을 계속 사용해야만 하는 분들이다. 한전은 이러한 ‘에너지 복지 소외’의 악순환을 끊고, 함께 웃을 수 있는 내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사업은 한전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동행’의 실천이다. 단순히 가전을 교체해 드리는 차원을 넘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11종의 고효율 가전제품¹을 구매할 때 비용의 일정 비율을 지원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전기요금을 줄여주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복지다. 지원 내용은 실질적이고 세밀하다. 가구 유형에 따라 구매 비용의 일정 금액을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해준다. 특히 경제적 여건이 더 어려운 분들에게는 지원 폭을 넓혀 고효율 가전으로 가는 문턱을 낮췄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께서 100만 원 상당의 고효율 냉장고를 마련하실 때 30만 원의 마음을 보태드릴 수 있다. 이는 단순히 가게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을 넘어, 매달 반복되는 전기요금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운 일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이웃의 삶에 실질적인 온기를 더하며 함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는 상생 기반의 진정한 ‘에너지 복지’가 아닐까?

골목상권 사장님들의 든든한 파트너 ‘소상공인 고효율 기기 지원사업’

“재료비에 인건비까지 안 오르는 게 없는데, 전기요금까지... 요즘은 가게 문 열어두기가 무섭습니다.” 현장에서 만나는 소상공인 사장님들의 한결같은 하소연이다. 식당이나 편의점, 동네 카페처럼 영업시간 내내 냉(난)방기와 각종 기기를 가동해야 하는 현장은 전기요금 변화에 가장 민감할

¹ 냉(난)방기, 김치냉장고, 에어컨(시스템에어컨 제외), 세탁기, 전기밥솥, 진공청소기(유선), 공기청정기, TV, 제습기, 의류건조기, 식기세척기

² 냉(난)방기 160만 원, 냉장고 160만 원, 세탁기 80만 원, 건조기 80만 원 한도

³ 설치 면적 m²당 (일반고객) 6만 원, (중소기업) 31.9만 원, (소상공인) 34.9만 원

⁴ 산업통상자원부 「2023년도 에너지총조사보고서(2022년 기준)」, ‘월별 가구당 에너지소비’ 및 ‘가구원수별 가구당 에너지소비’ 통계(추정평균) 활용하여 산출한 연간 사용량(3,779kWh) 적용

⁵ 기후에너지환경부 「2025년 승인 국가 온실가스 배출·흡수계수」 전력배출계수(0.4149t CO₂/MWh) 적용

수밖에 없다. 이에 한전은 소상공인 사장님들이 경영의 시름을 덜고 본업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자 한다.

먼저, 사업장에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1등급 제품(냉(난)방기,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을 신규 설치할 경우, 구매 비용의 40%를 품목별 한도 내²에서 지원해준다.

또한 식품매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개방형 냉장고에 단열성, 안전성, 시인성을 확보한 유리를 활용하여 문(Door)을 닫거나, Door형 냉장고로 교체 또는 신규 설치할 경우 설치 면적에 따라 비용³을 지원하여 에너지가 밖으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돕고 있다.

이 사업이 추구하는 상생의 가치는 명확하다.

첫째,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영 부담을 완화한다. 고효율 기기는 전기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여준다.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전기요금을 줄이는 것은 매출을 올리는 것만큼이나 경영 안정에 큰 도움이 된다.

둘째, 국가 전체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선순환을 만든다. 전국 각지의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이 에너지를 똑똑하게 사용하게 된다면, 이는 곧 국가 전체의 전력 수급 안정과 탄소 중립으로 이어지는 값진 발걸음이 될 것이다.

나눔이 일궈낸 결실 숫자로 확인하는 상생의 가치

지금까지 한전이 이 사업들을 통해 만들어낸 변화는 놀랍다. 2025년 한 해 동안 지원 금액 약 551억 원을 통해 총 67,554가구의 취약계층 가구의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와 34,710곳의 소상공인 사업장에 고효율 기기 교체를 지원했다. 이는 단순한 비용 지출이 아니라,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값진 투자이다. 새롭게 교체된 고효율 가전제품과 기기들이 아껴주는 전력량은 연간 약 84GWh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4인 가구를 기준으로 무려 2만 2천여 세대⁴가 한 해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소중한 에너지이다. 이웃의 삶을 보듬는 우리의 지원이 모여, 수많은 가정의 일상을 환하게 밝히는 든든한 ‘에너지 버팀목’이 된 셈이다.

에너지를 아끼는 것은 곧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를 지키는 일과도 맞닿아 있다. 지난해 우리는 이 사업을 통해 약 3만 5천t CO₂⁵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값진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608만 그루의 소나무를 심는 것과 맞먹는 효과로, 여의도 면적의 17배에 달하는 울창한 소나무 숲이 우리 곁에 새로 생겨난 것과 다름없는 선물 같은 기록이다.

Epilogue

우리는 ‘희망의 빛’을 켜는 사람들입니다.

사무실 혹은 현장에서 처리하는 서류 한 장과 전화 한 통. 우리는 이 작은 노력으로 누군가에게는 쾌적한 여름을, 누군가에게는 온기 가득한 겨울을,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지원 및 소상공인 고효율 기기 지원사업은 단순히 노후한 장비를 교체해 드리는 사업이 아닙니다. 에너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고단한 일상을 보듬고, 지역 경제의 든든한 뿌리인 소상공인들을 응원하며, 나아가 지속 가능한 지구를 함께 일궈나가는 한전의 자부심이자 상생의 철학입니다.

앞으로도 한전은 에너지 효율 혁신을 선도하는 리더이자,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든든한 이웃으로 늘 곁에 있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러한 지원이 절실함에도 방법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어 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한전의 소중한 홍보대사이자, 누군가의 삶에 희망을 전하는 소중한 메신저입니다.



1930년 조선총독부(현 경복궁 위치) 앞을 지나는 전차 ("서울의 전차", 서울역사박물관, 2019)

전차와 한성전기, 그리고 한국전력 III

전차, 지금 우리에게 돌아오다

전차는 사라졌으나, 아직도 우리의 곁에는 전차의 흔적이 밀접히 남아있다. 종로를 관통하여 청량리로 향하는 지하철 1호선은 전차 노선의 잔상이며, 지금 어렵듯이 사람들의 기억에 남은 과거 종로의 이미지 속에도 전차가 자리 잡고 있다. 또한 실제로 갑자기 나타나기도 하는데, 대표적으로 광화문 광장과 흥인지문 앞 그리고 청계천 일대 발굴조사 과정에서 종종 전차 침목과 선로들이 확인되고 있다.

글 이상일 홍보처 홍보기획부 학예사

전차, 광화문에서 다시 나타난다

지금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 명소는 어디일까? K-문화의 전 세계적 확산에 따라 서울 역시 전 세계적인 관광지 중 하나가 되었는데 어느 한 곳을 꼽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중에서 가장 한국의 전통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곳은 경복궁 일대라 말할 수 있다. 극도로 밀집된 도시 공간 속에 전통적 공간이 공존하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드문 사례로, 첨단 미디어월이 가득한 세종대로 일대의 끝에는 경복궁과 광화문이 자리 잡고 있다.

이곳 광화문 앞 광장에서는 한복을 입은 많은 외국인들이 수문장 교대식을 관람한다. 특히 이 광장은 '월대(月臺)'라고 불리는 곳으로, 경복궁의 남문(南門)이자 정문(正門)인 광화문 앞에 두는 '섬돌'이다. 본래 조선시대 전기(前期)에는 별다른 시설이 없이 바닥에 박석을 깔고 햇빛 가리개를 설치하여 활용했으나, 조선시대 말 흥선대원군이 임진왜란으로 소실된 경복궁을 복원하면서 광화문 앞에 월대를 조성하였다.

그런데, 바로 이곳 광화문 월대에서 전차와 관련된 대규모 유적이 발견되었다. 국가유산청의 「경복궁 종합정비계획」 수립에 따라 2006년부터 광화문복원사업이 진행되어 2007년 월대 일부 구역을 찾았다. 이후 2022년 발굴조사를 통해 전체 월대의 규모와 구조를 확인하여 2023년, 지금의 모습으로 복원되었다. 이 과정에서 월대를 파괴하고 그 위에 설치했던 전차 궤도가 확인된 것이다.

광화문 일대의 전차 노선은 1917년 총독부 공사에 필요한 재료를 운송하기 위해 월대 위치까지 경성전기에 의해 처음 부설된 후, 1918년 경



- ↑ 철거 전 광화문 월대(국립중앙박물관 조선총독부박물관 유리건판)
- ↙ 광화문 월대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전차 궤도(국가유산청)
- 전차 궤도(전기박물관)
- ↓ 전차 모형(전기박물관)



복궁 주변에 직장을 둔 사람들을 위한 여객용으로 운행되었다. 그러나 1923년에 들어서면서 동쪽 안국동의 사택 단지 노동자를 위한 안국동선이 부설되고, 경복궁에서 조선부품업공진회가 개최되어 서쪽에 통의동선이 부설되면서 월대는 사라지게 되었다. 그리고 1926년 총독부의 이천 및 효자동 일대 학생 수요, 북촌 지역 인구 밀집을 계기로 해당 노선들은 복선화되었다. 이 노선은 경성전기를 거쳐 한국전력이 운영을 이어갔는데, 1966년 존슨 미국 대통령 방한을 급히 준비하는 과정에서 철거조차 하지 못하고 그대로 땅에 묻히기에 발굴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것이다.

전차, 전기박물관에 돌아오다

이 전차 궤도는 부설 과정에서 경복궁 광화문 월대를 훼손시켰지만, 이 또한 100년의 역사를 품은 근대의 유산이다. 이에 국가유산청과 서울시는 발굴조사 후 전차궤도를 인수할 기관을 찾았는데, 가장 먼저 고려된 곳이 한성전기-한미전기-경성전기를 계승하며 과거 전차를 실제로 운영하고 소유한 역사를 가진 우리 한국전력이었다. 다만, 당시 전기박물관이 리노베이션 과정에 있었기에, 우선 철도박물관으로 옮겨졌으며



과거 전차의 역사자료를 다수 소장하고 있는 전기박물관의 협조를 통해 '서울 전차 역사관'이 조성되었다.

그리고 작년 말, 전차의 역사를 담고 있는 궤도가 드디어 우리 한국전력 전기박물관에 돌아왔다. 박물관에는 기존에 당시 전차에서 사용된 속도제어기, 신호종, 상하차 종 등이 설치된 전차 실물 모형이 있다. 그 옆에 광화문 월대에서 출토된 전차 궤도를 설치하여 전시를 시작한다. 이 궤도는 역사적 가치가 높다. 일반 궤도와 달리 시설하기 힘든 곡선 구간으로 당시 최첨단 재료인 콘크리트로 조성된 노반 위에 세척된 강자갈을 깔고 설치한 것이다. 본래 노면 전차의 궤도는 도로에 묻혀서 운영되기에 이 구조가 잘 보이지 않지만, 박물관 전시물은 궤도 구조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노출 방식을 택했다. 전시장 전면은 궤도를 구성하는 침목, 이음매판, 개못, 레일, 보조레일의 실물을 과거 모습 그대로 조합하여 보여주고, 전시장 측면은 2m 길이의 레일을 설치하여 전차가 달렸던 노반 모습을 복원하였다.

전차는 1888년 미국에서도 시험 운행 중이었던 것으로, 1899년 우리 한성전기가 당시 최첨단 사업인 전기를 활용한 대중교통을 첫 사업으로 시작한 것은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본래 전기철로, 전기등, 전화와 같은 당시 최첨단 기술을 이끌고 보급하기 위해 한성전기가 설립된 것으로, 이는 지금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가 에너지의 새로운 비전과 미래를 향한 여정을 이끄는 것처럼, 전차 역시 한국전력의 전신인 한성전기 탄생과 함께하며 산업 진흥과 일상 생활에 새로운 변화를 불려오며 근대로의 질주를 이끌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앞으로 전기박물관에서는 한국전력의 태동을 함께한 전차의 역사와 가치를 더욱더 널리 알릴 예정이다.

미래를 바꾸는 기술의 메카 고창 전력시험센터를 가다

백년대계라는 말이 있다. 시간을 넘고 시대를 넘어 먼 미래를 내다보는 시선을 일컫는다. 그 어느 때보다 변화의 유속이 빠르기에 백년대계가 더욱 중요한 시대다. 오늘의 한 걸음이 미래의 엄청난 격차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백년대계의 기술이 태어나고 있는 현장, 고창전력시험센터를 가보았다.

글 장은경 사진 이동진

‘고창’하면 상하목장만 떠올리시는 분들은 주목하시라. 상하목장 바로 옆에 대한민국 백년의 미래를 밝히기 위한 최첨단 에너지기술을 태동시키는 산실, 고창전력시험센터가 자리해 있다.

구시포 해안가에 자리 잡은 74만 967㎡, 약 23만 평 광활한 부지의 고창전력시험센터에 대한민국 전력기술의 정수가 집약되어 있다.

에너지고속도로의 핵심축, HVDC 실증시험장

맨 먼저 미래전력망의 핵심축인 HVDC(초고압직류송전) 실증시험장으로 가보았다. 미래의 연구실에 들어온 듯 생소한 첨단설비들로 가득한 HVDC실증시험장은 케이블 실증시험장과 가공실증시험장으로 구성돼 있다.

가공 실증시험장은 ±500kV 초고압직류(HVDC)기술 국산화와 신뢰성 검증에 의해 구축되었으며, 국내 환경에 적합한 HVDC 기자재 개발 및 상용화에 활용되고 있다.

케이블 실증시험장은 HVDC 케이블 연구와 시험을 위해 2021년에 구축됐다. HVDC 케이블 운영 진단 신기술 개발, 케이블 절연 평가 및 규격 정립 실증시험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국제인증(KEMA)이 가능한 인프라가 구축돼 있어 DC 800kV급까지 동시에 2개 선로의 국제공인시험이 가능하다. 최근 HVDC 고장점 탐지기술로 미국 EPRI에서 최우수 기술상을 수상하면서 기술력을 인정받는 등 해외사업화도 활발히 추진한다.



HVDC 실증시험장

국제적 인증과 실증을 동시에 수행

고창전력시험센터는 연구성과물, 전력기자재 및 시스템, 신개발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기에 앞서 실증을 통한 검증과 보완으로 완성도를 높이고, 실 계통에 적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이도록 돕는 종합 실증시험센터로서 활약하고 있다.

송변전 12개소, 배전 7개소, 신재생 4개소, 기타 8개소로 총 31개의 시험장을 운영하고 있다. 초창기에는 전력공급 안정화를 위해 송변전 및 배전 분야 실증시험 위주로 시험장이 구축됐으며, 2010년 이후로 신재생에너지, 디지털실증, 초고압케이블 및 변전설비 인증시험 등이 추가되어 실증과 인증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종합전력시험센터의 면모를 갖췄다. 보유설비를 활용하여 KOLAS¹, KEMA 등 국내는 물론 국제 시험자격 인증을 수행하는데, 자체 성과물뿐 아니라 외부 요청 인증도 수행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인증 및 실증을 동시에 운영하는 기관은 한전이 유일하다. 이전에는 전력 설비 상용화에 필수적인 국제 인증을

받으려면 전력설비를 싣고 해외에까지 가서 받아와야 했는데 이를 고창 시험센터에서 수행함으로써 국내 전력설비 생산업체들로서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특히 고창전력시험센터는 R&D성과물을 실제 환경과 유사한 조건 또는 그 이상의 시험환경을 연구자가 원하는 대로 구축해 사전 성능검증이 가능하도록 하는 모의 실증환경을 보유하고 있다. 게다가 외부망과 분리된 조건에서 실증테스트를 시행하므로 외부로 피해나 파급 영향이 전혀 없이 모의고장과 극한 환경 노출 등 다양한 필드 테스트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¹ KOLAS(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케이블 품질 국제표준 부합여부 국내 인증.



765kv 송전선로 실증시험장



① 변전설비 종합실증시험장
② HVDC실증시험장에서 주요설비를 들여다보는 한전 담당자
③ 배전용 강관전주 모형 및 전류시험시스템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 보급이 확대되면서 다목적 통합운영기술 고도화와 신규 사업모델 검증을 위해 구축된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ESS)시험장. 이곳에는 주파수 조정 ESS의 1개 변전소급인 28MW급 ESS 계반설비와 1MW급 슈퍼커패시터 등이 도열해 있다.

이 설비들은 전력계통 주파수 조정과 계통 안정화용 ESS 운영기술 개발에 활용됐고, 1MW급 슈퍼캡 및 슈퍼캡-배터리 협조운전 실계통 연계 실증에 기여했다. 이 실증시험장에서 얻어진 결과를 바탕으로 해외 아일랜드 보조서비스 시장 진출을 위한 슈퍼캡 국제공동 현지실증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신사업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고창전력시험센터의 역사가 시작된 곳, 765kV 송전선로 실증시험장

다음은 765kV 송전선로 실증시험장으로 향했다. 이곳 765kV 송전선로 실증시험장은 고창전력시험센터가 태동한 본산으로 대한민국 전력 자립의 역사가 서렸다.

1980년대 당시, 전력당국은 매년 10%의 급격한 전력수요 증가를 기존 전력망으로 감당하기 어려워져 765kV 송전선로 도입을 결정했다. 문제는 장소였다. 강풍, 염해, 폭설 등 극한 환경의 실증시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부지를 찾아야 했다. 때마침, 영광원자력발전소 건설로 공군 사격장이 이전하며 유휴부지로 전환된 고창군 상하면 부지 위에 765kV 실증선로를 구축했다. 그리고 1993년에 실증선로가 완공되어 마침내 765kV 송전 기술 국산화의 꿈을 이루어냈으며, 종합적이고 본격적인 전력기술 실증을 전담하는 고창전력시험센터가 출범했다.

이곳엔 22.9kV를 765kV로 승압하는 변전설비와 765kV 철탑 6기로 구성된 1km 규모의 실증선로가 구축돼 있다. 이는 철탑구조, 기초, 전선, 금구류 등의 규격 및 기자재 실증에 활용돼왔고, 신대백-신가평선로 등 전력 설비의 설계기준을 제시하고 기술기준을 검증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 이곳엔 철탑 상부까지 올라갈 수 있는 승강기가 있어, 국내 최고 전압의 송전철탑에 올라 견학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승강기를 타고 철탑꼭대기에 오르면 지상보다 세찬 바람에 놀라고, 765kV 선로를 따라 고창전력시험센터와 바다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풍광에 놀란다.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ESS) 실증시험장

이밖에도 고창전력시험센터에는 저압직류(LVDC) 배전실증시험장, 변전설비 종합실증시험장, 태양광발전실증시험장, DC시험장, 전자파저감 실증시험장 등이 구축되어 있다. 고창전력시험센터는 에너지대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루고 미래에너지전력망을 이루는 데 중요한 기술과 설비들을 실증과 인증하며 미래 기술의 메카로서의 사명을 톡톡히 감당하고 있다.

관람 TIP 전자계 이해 증진관

고창전력시험센터에 방문하면 꼭 들른다는 전자계 이해 증진관. 일반고객도 전력설비의 전자계 관련한 주요 주제전시와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꾸며져 전자파와 전자계에 대한 이해를 한 차원 끌어올리게 도와주는 흥미로운 전시관이다. 이곳을 담당하는 박기훈 차장은 이곳에 들러 전자계 의자를 꼭 체험해보길 추천한다.

☎ 문의 042 865 7211



KEPCO NEWS

2026. 03.



경기도와 도로-전력 SOC 공동건설 협력

한전과 경기도가 도로와 전력망을 함께 구축하는 SOC 공동건설 협력에 나서며, 전력망 적기 확충과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새로운 협력모델을 추진한다.

한전과 경기도는 1월 22일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내 도로-전력 SOC 공동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내용은 경기도 내 지방도와 한전 전력망 건설계획 공유, 공동건설 사업의 설계-시공 협력체계 구축, 협약 이행을 위한 실무협의체 운영, 시범 사업 추진 등이다.

이번 협약으로 도로와 전력망을 개별적으로 건설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SOC 계획 단계부터 도로와 전력망을 공동으로 설계하고, 시공 단계에서는 시범사업을 추진해 사업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전력공급에 필요한 전력망을 신속히 구축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미래형 인프라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전은 이번 협력을 계기로 도로-전력 공동 건설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향후 다른 SOC 기관과의 협력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전력망 적기 확충을 위한 협업 모델로 정착시킬 계획이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한전 구현'을 위한 청렴실천 결의대회 개최

한전은 1월 26일 한전 본사에서 전 임직원의 청렴윤리교육을 근본적으로 쇠신하고, 법과 원칙을 엄격히 준수하는 조직으로 도약하기 위해 '청렴윤리경영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철 사장을 비롯해 상임감사 위원, 전(전) 경영진과 사업소장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사장 직속 청렴윤리 전담 조직인 준법경영실의 청렴윤리경영 추진계획 보고, 업무 분야별 청렴도 향상 추진 대책 공유, 청렴윤리경영 실천 서약, 청렴 한전 구현을 위한 토론회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경영진은 이날 '청렴윤리경영 실천 결의문'을 통해 국내외 법령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수행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또한 모든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가치와 인권을 존중하고, 지속가능한 청렴윤리 문화 정착을 위해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밝혔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청렴 한전 구현을 위한 본사 및 사업소의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일선 현장과 관리자가 솔선수범하여 오랜 업무처리 관행을 과감히 타파하고,

소극 행정을 개선하여 투명한 업무처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김동철 사장은 "앞으로 전력공급 역량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될 것이며, 한전에 부여된 사명 또한 막중하다"라며 "국민 신뢰의 근간인 '청렴'을 모든 업무의 핵심 가치로 삼아, 국민이 더욱 믿고 신뢰하는 청렴한 한전을 함께 만들어 가자"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한전은 사장이 직접 주도하는 반부패 컨트롤 타워인 '청렴혁신 추진단'을 신설해 청렴윤리 과제들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사장과 경영진이 직접 사업소 현장을 방문해 직원들과 청렴 소통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고객응대 청렴 표준모델을 구축하여 관행적 업무처리를 개선하고 부패 사각지대 제거를 위한 활동을 강화하는 등 강력한 청렴 리더십을 기반으로 예방 중심의 청렴윤리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미국 괌 재생에너지 전력사업에 5억 달러 규모 프로젝트파이낸싱 성공

한전이 국내 기업들과 협력해 미국 괌 지역에서 추진 중인 태양광-ESS 연계 재생에너지 전력사업에 대해 총 약 5억 달러(약 7천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스(이하 PF) 계약을 성공적으로 체결했다.

이번 PF계약은 모회사 상환보증 없이 현지 사업법인의 사업성과 장기 전력판매계약(PPA)을 기반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구조로 추진됐다. 최근 국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한국수출입은행을 중심으로 국제상업은행을 포함한 대주단이 참여해 경쟁력 있는 조건의 금융조달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본 사업은 괌 전력청(Guam Power Authority)이 발주한 전력사업으로 괌 요나(Yona) 지역에 태양광 설비 132MW와 에너지저장장치(ESS) 84MW/325MWh를 구축해 친환경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이 완료되면 연간 약 222GWh 규모의 전력공급이 가능해져 괌 지역 약 2만 가구의

연간 전력수요를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괌에서 한전이 주도하는 발전 설비용량은 기존 258MW에서 390MW로 확대되며, 이는 괌 전체 발전용량(708MW)의 약 55%에 해당된다. 이를 통해 지역 핵심 전력사업자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지분 투자부터 설계-조달-시공(EPC), 운영-관리(O&M)까지 전 주기에 국내 기업이 참여하는 구조로 추진됐다. 이번 모델은 재생에너지 전력사업 분야에서 성공적인 '팀 코리아' 협업 모델의 대표 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향후 북미 지역 내 유사 전력 사업 수주를 위한 중요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김동철 사장은 "이번 PF 체결은 모회사 보증 없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사업성과 신뢰를 기반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한전의 해외사업 역량과 사업 리스크 관리 능력을 입증한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태양광과 ESS 등 에너지 신사업을 중심으로 '팀 코리아' 전력사업 모델을 해외 시장에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전은 이번 금융계약을 계기로 북미 지역 재생에너지 전력사업 포트폴리오를 지속 확대하며, 글로벌 에너지 전환과 해외 신사업 진출에 적극 기여할 계획이다.



설 연휴 안정적 전력공급 위해 전력설비특별점검 및 비상근무 체계 가동

한전은 설 연휴를 맞아 정전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력설비 특별점검을 시행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비상근무를 펼쳤다.

한전은 동계기간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지

난해 11월부터 전력설비 진단과 점검을 강화해 왔다. 특히 2월 2일부터 13일까지를 '설 연휴 대비 특별점검 기간'으로 지정하고 18,000여 명의 인원을 투입해 전력설비 점검을 진행했다. 여객터미널,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2,029개소)의 공급선로와 전통시장(1,420개소) 내 전력설비 대한 특별점검 및 보강을 완료했다. 또한, 아파트 정전 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 복구지원 체계를 재점검했다. 이와 함께 대규모 정전을 예방하기 위해 파급 영향이 큰 지역의 전력설비(306개 선로, 154개 변전소)를 대상으로 과학화 장비를 활용하여 변압기, 개폐장치의 과열 등 이상 유무를 정밀 진단했다. 더불어 도심지 등에 위치한 변전소(785개소)와 강공에 취약한 경량 외벽과 송전선로(706개소)를 집중 안전점검하고, 설비고장 위험요인 조치를 완료해 전력설비 안정성을 강화했다.

한편, 김동철 사장과 최철호 전국전력노조위원장은 2월 10일 전남 나주시 '나주동신요양원'과 '어린엄마동지'를 방문하여 취약계층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후원금을 전달하고 해당 시설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지원했다.

아울러 설 연휴 기간(5일간) 내내 한전은 553개 협력회사와 함께 매일 2,900여 명의 비상근무 인력을 투입하여 비상대응 체계를 유지했다. 특히 아파트 등 고객이 책임지고 관리해야 하는 전기설비 고장 발생 시에도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비상발전기, 이동용 변압기, 임시공급설비 설치 등 '24시간 긴급지원'에 나설 수 있는 대응체계를 확립했다.

또한 1월 19일부터 2월 13일까지 4주간을 '설 명절 집중 봉사활동 기간'으로 지정하고, 전국 304개 한전 사회봉사단에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러브펀드'를 활용해 생필품 기부, 전기설비 점검 등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했다.

앞으로도 한전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상생과 소외계층의 복지향상 등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코리아 스마트그리드 엑스포 2026'에서 차세대 신기술 대거 공개

한전이 2월 4일부터 6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코리아 스마트그리드 엑스포에 참가해 미래 에너지 신산업을 주도할 신기술들을 선보였다. 코리아 스마트그리드 엑스포 2026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최하고 350개 기업이 참여하는 스마트그리드 및 에너지 신산업 분야 국내 대표 전시회로, 매년 산학연 관계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한전은 엑스포에서 탄소중립과 분산에너지 확산, 전력 디지털 전환 등 에너지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신기술과 운영 플랫폼을 중심으로 전시관을 구성했다.

특히, 기술 실증과 사업화를 위한 기술지주회사 설립과 유니콘 기업 발굴 등 신사업 비전과 정체성을 소개하고, 에너지의 생산, 이동, 조절 과정을 첨단 입체 영상 기법과 스토리텔링 방식을 활용하여 관람객이 에너지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전시관은 슈퍼캐패시터, 초전도, DC 기반 전력기술을 비롯해, 지능형 배전망 운영시스템, 지능형 검침 인프라 등의 콘텐트로 구성됐다. 아울러 배터리 열화관리 시스템과 IDPP 등 데이터 기반 전력 운영 기술을 통해 에너지 설비의 상태 진단-예측-최적 운영이 어떻게 새로운 서비스와 사업 모델로 확장될 수 있는지를 소개했다. 이를 통해 전시회를 찾은 기업 및 기관 투자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공동 사업 발굴과 신산업 창출 기회를 확대했다.

한전은 향후에도 지속적인 신기술 개발과 성과 공유를 통해 지역 상생형 신사업 모델을 확대하고, 혁신적인 유니콘 기업을 발굴해 나가는 등 에너지 산업 생태계 확장을 선도할 계획이다.



KEPCO

2026 March
Vol.633

균형



LOCAL : RISING 봄 숨 피는 광양	4
TREND Z세대가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 메타센싱	8
SELECT : ON 봄빛으로 물든 작품들	12
RE : CHARGE 일과 삶의 중간에서 함께 빛는 심표	16
SCIENCE 뇌를 닮은 반도체, 뉴로모픽	20
KEPCO TALK 20년 '막내'들의 의리! 세상에 빛을 전하는 '끈끈한' 동행	24
KEPCO QUIZ	26



QR코드를 스캔하면
더 많은 이야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봄
숨
피는

딱 한 마디, “광양엘 가야겠다!”라는 말만 했더라. 그런데 순간 사위가 다 술렁였다. 거긴 벌써 매화가 피었을 것이라 추측부터 “동백숲이 멋진 곳”이라는 등 “강에 바다까지 좋은 곳”이라는 등 수많은 말이 한달음에 쏟아졌다. 그러다 삼시간에 고요해졌다. 모두 각자의 봄을 들이미시는 중이라는 듯. 광양은 그렇게 떠올리는 순간부터 모락모락 툭툭, 봄을 피워 올렸다.

글·사진 이시목 여행작가

매화가 폼다, 그래서 봄인 걸 안다

광양의 봄날은 늘 꽃으로부터 시작된다. 매화 뽀얗게 터지고 동백꽃 빨강게 피며 열린다. 그 푸진 꽃밭을 따라 강에서 바다까지 잔잔히 흘러가 보는 것이 광양의 봄날을 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섰다, 매화 피는 섬진강에. 이맘때 섬진강은 시인 김용택의 표현대로 ‘천지간이 꽃’인 곳이다. 그중에서도 매화마을이라 불리는 섬진마을의 꽃밭이 유독 황홀하다. 섬진강 강줄기를 속 넓게 품고 있는 이곳은 봄바람에 매화 꽃눈이 툭툭 트는 꽃 세상. 감상 포인트는 마을 입구에 있는 섬진나루와 마을 가장 높은 자리에 등지를 튼 청매실농원이다. 먼저 수월정과

두꺼비 석상 4기가 놓여 있는 섬진나루부터 찾자. 섬진나루는 진안에서부터 숨 가쁘게 달려온 섬진강 물줄기가 남해바다 목전에서 한 박자 쉬어가는 곳. 이곳에 서면 살결 푸른 강물 위로 하얗게 드리운 매화 꽃그늘이 가깝게 보인다. 섬진나루를 벗어나면 길은 곧 청매실농원에 닿는다. 섬진강 푸른 물줄기에 발치를 둔 청매실농원은 강과 산, 꽃의 어울림이 아름다운 16만㎡(5만여 평) 규모의 매원. 향아리 2,500여 개가 도열한 매원 마당을 중심으로 매원을 한 바퀴 도는 산책로가 조성돼 있는데, 어떤 길은 여염집 아낙네의 가르마처럼 정갈하고, 어떤 길은 몽실몽실한



광
양

청매실농원의 세월을 품은 2,500여 개의 장독.



- ↑ 배알도 수변공원에서 바라본 배알도 보도교와 배알도.
- ↗ 옥룡사지의 동백꽃은 3월 중순까지 피고 지다, 하순이면 뚝뚝 저 내린다.
- ↓ 광양 매화마을은 매화밭에서 매화꽃을 볼 수 있을 만큼 규모가 크다.

uhn 해 속을 흐르는 듯 몽환적이다. 여기에 일부 꽃밭에서는 청보리까지 자라니 참 곱다. 그렇게 하얀 꽃구름 속을 휘돌다 보면 길 끝에서 초가 집을 만난다. 영화 <천년학> 세트장이었던 이곳에선 마음이 충분히 실 수 있을 만큼 오래 머물 일이다. 반들반들 윤이 나는 대청마루가 섬진강을 향해 있어 꽃밭 너머로 윤슬이 반짝거리는 모습이 보인다. 마치 강에 흩뿌려진 별들이 수려거리는 걸 가만히 지켜보는 것처럼 마음이 흐뭇해질 테다.

동백꽃 설운 것을 보니 또 봄이다

때로 풍경은 슬프다. 너무 찬란해서 아프고 너무 풋풋해서 서럽다. 백운산 자락에 있는 옥룡사지가 그렇다. 풍수지리학의 조상격인 도선국사가 절의 기운을 보하기 위해 동백나무를 심었다는 곳. 그러나 주인인 절은 오간 데 없고 울창한 동백나무숲만 남았다. 그런 옥룡사지가 어느 때보다 특별해지는 순간이 봄이다. 누구나 알고 있듯 동백은 붉게 폼뿔(血)처럼 져야 비로소 봄임을 실감케 하는 꽃이다. 봄날에 옥룡사지에 간다는 건 동백꽃의 서글픈 꽃 잔치를 만나러 간다는 얘기다. 그만큼 봄날의 옥룡사지엔 동백꽃이 낭자하다. 특히 옥룡사지의 동백나무숲은 입구 주차장에서 옛 절터로 올라가는 산책로 주변과 부도탑으로 내려가는 길 주위로 울창하다. 하지만 옥룡사지에선 부디 동백꽃에만 눈길을 두진 말 일이다. 옥룡사지엔 동백보다 더한 무게로 세월을 산 것들도 있으니. 옥룡사는 신라 말기 승려인 도선국사가 머물며 수백명의 제자를 양성하다 입적한 곳이고, 이곳에서 발견된 유물만 100여점에 달했을 정도로 그 규모가 컸던 곳이다. 그랬던 곳이 텅, 비었다. 남아 있는 것이라곤 동백나무숲과 몇 기의 부도뿐. 상상해보시라.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은 옛 절, 그 빈 터가 주는 아스라함을 말이다. 아니, 절



터조차 남아 있지 않아 복원마저 힘든 공간이 주는 허허로움은 팍 채운 것들이 줄 수 없는 여백의 아름다움을 지녔다. 이를테면 세월만 오롯이 담긴 풍경이고 바람만 드나드는 공간이다.

바다로 흐르는 시(詩)의 푸른 숨결

매화 피고 동백꽃 지는 풍경만 광양의 봄은 아니다. 비록 흐드러진 매화만큼 찬란하지 않고, 핏빛 동백만큼 화려하지 않지만 광양의 산과 바다도 소박하고 고즈넉한 정취가 일품이다. 특히 백운산과 망덕포구가 특별하다. 백운산(1,222m)은 광양을 어머니의 품처럼 감싸 안은 남도의 명산으로 뽀뽀한 원시림과 삼나무, 편백나무 등 인공림이 서로 잘 어울려 있다. 봄날엔 이 산언저리에 있는 휴양림을 걷는 기분이 좋다. 1km 가량 이어지는 '황톳길(맨발체험장)'을 맨발로 타박타박 걸으면 싱싱한 봄기운이 몸 가득 스민다. 백운산이 연둛빛으로 물들 무렵 망덕포구엔 벚굴이 가득 피어 반갑다. '벚꽃이 필 때 가장 맛있다'라는 벚굴은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망덕포구(섬진강 하구)에서 이즈음 맛볼 수 있는 별미다. 크기가 웬만한 어른 손바닥만큼 큰 데다 맛까지 탁월해 '꿀떡꿀떡' 잘 넘어간다. 벚굴의 풍미로 입안이 개운해졌다면 포구 끝에서 바다로 이어지는 길을 따라 배알도로 향하자. 배알도는 강과 바다가 만나는 지점에 보석처럼 박혀, 강이기도 바다이기도 한 지점 특유의 풍광을 만끽하기 좋은 곳이다. 그래서일까. 이 섬에선 푸르고 무른 숨을 쉬기에 더없이 좋다. 배알도 곁, 그 맑은 물가엔 '별의 시인 윤동주를 만날 수 있는 곳'도 있다. '윤동주 유고 보존 정병욱 가옥'이다. 일제강점기, 시인의 유고가 이 집 마루 밑 향아리 속에서 살아남았다. 꽃들 피고 지는 이 찬란한 계절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시를 곱씹는 일은 그래서 더 감동적이다.

시간이 넉넉하다면 광양와인동굴로도 길을 잡자. 실제 기차가 다니던 광양제철선의 페터널을 와인저장고로 단장해 분위기가 독특한데, 터널에 미디어 예술을 접목해 웬만한 꽃밭만큼 환하다. 그 화려한 영상소를 보며 와인 한 잔을 맛볼 수 있어 마음에 담기는 '봄 숨'이 더 깊고 진하다.

TRAVEL TIP



청매실농원

- 🕒 운영시간 08:00~18:00
- 📅 축제기간 2026. 3. 13.~3. 22.
- 🎫 입장료 성인 6,000원(광양사랑상품권으로 전액 환급)
- ☎ 문의 061 772 4066



옥룡사지

- 🕒 운영시간 24시간 개방
- 🎫 입장료 무료
- ☎ 문의 061 797 2418(옥룡사지 관광안내소)



광양 와인동굴

- 🕒 운영시간 09:30~18:00(매포 마감 17:20)
- 📅 휴관일 연중무휴
- 🎫 입장료 성인 7,000원
- ☎ 문의 061 794 7788



윤동주 유고 보존 정병욱 가옥

- 🕒 운영시간 10:00~17: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 휴관일 연중무휴(시설 점검 시 비정기 휴무)
- 🎫 입장료 무료
- ☎ 문의 061 797 3333(광양시 관광안내소)

지서협 광양지사 전력공급팀 대리

광양에 살아보니

차가운 철의 심장을 가졌지만
그 누구보다 따뜻한 봄을 먼저 알리는 도시, 광양

평생을 서울에서 살아온 저에게 '전라남도 광양'은 지도 끝에 매달린 낯선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광양이 제 생각처럼 차가운 회색빛 산업 도시가 아니라, 뜨거운 에너지와 눈부신 자연이 묘하게 공존하는 도시라는 사실을 깨닫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첫 발령지로 이곳에 발을 내디딘 순간부터 저는 이 도시에 가졌던 오랜 관념을 뒤흔드는 새로운 경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력공급팀 업무 특성상 다양한 현장을 누비다 보면 광양의 구석구석을 조금 더 가까이서 마주하게 됩니다. 처음 광양제철소의 위용을 보았을 때 느꼈던 압도적인 기운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거대한 설비들을 보며, 세계에서 가장 큰 단일 제철소인 만큼 우리나라 경제가 바로 이곳에서 숨 쉬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더욱이, 그곳으로 이어지는 선로들을 보며 전력공급을 통해 국가에 기여하고 있다는 자긍심과 묘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바다 위로 펼쳐지는 제철소의 불빛들과 이순신대교의 화려한 조명

들은 누군가에게겐 치열한 일터였지만, 저에게는 이 도시가 만들어내는 현대적인 예술처럼 다가왔습니다. 광양에서 생활하며 깨달은 점 하나는 꼽자면, '공존의 가치'입니다. 인간이 만든 거대한 산업단지가 대자연 안에서 조화롭게 어우러진다는 점에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 광양제철소, 그 거대한 철강의 요새를 조금만 벗어나면 반전처럼 펼쳐지는 눈부신 자연경관이 있습니다. 특히 3월의 광양은 더욱 아름답습니다. 섬진강 변을 따라 끝도 없이 피어나는 매화꽃은 제철소의 도시라는 이미지와는 다르게 서정적입니다. '광양매화축제'가 열릴 때면 꽃 몽우리는 어느새 아름답게 피어오르고, 매화축제 전력 확보 업무에 힘썼던 직원들의 노고를 위로하듯 하얀 꽃송이가 어깨 위로 내려앉습니다. 광양은 취할 거리로 가득합니다. 술 이야기가 아닙니다. 화려한 야경에 취하고 싶을 땐 이순신대교, 꽃향기에 취하고 싶을 땐 섬진강 매화마을, 맛에 취하고 싶을 땐 망덕포구와 광양 불고기 특화거리로 향하면 됩니다. 여러분 역시 광양에 취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서울 토박이였던 제가 이제는 지인들에게 여행지로 광양을 추천하곤 합니다. 차가운 철의 심장을 가졌지만, 그 누구보다 따뜻한 봄을 먼저 알리는 도시. 광양의 매력을 여러분도 꼭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Z세대가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

메타 센싱

Meta-sensing

최근 Z세대를 중심으로 메타센싱(Meta-sensing) 트렌드가 떠오르고 있다. 메타인지가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능력이라면, 메타센싱은 자기 감정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는 태도를 말한다. 이는 Z세대의 가치관과 관계, 콘텐츠, 소비 등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우리사회의 다정함을 키우고 있다.

글 김성욱 대학내일20대연구소 매니저

불안과 피로가 쏟아 올린 '감정 관리' 역량

대학내일20대연구소는 소비 트렌드를 주도하는 Z세대에 주목하며 이들의 특징을 분석하고, 다가올 시대 변화를 전망한다. 이를 위해 매년 수백 개의 트렌드 사례를 수집하며, Z세대의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을 알아볼 수 있는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또 Z세대의 실제 의견과 소셜 빅 데이터를 통해 교차 검증한다.

지난해 진행한 연구에서 가장 눈에 띈 것은 바로 '감정'이다. 가령 Z세대는 산책, 격분 등 감정 조절에 도움이 되는 여가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감정 일기'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기록하며, 감정 관리를 위한 나만의 루틴을 만들기도 한다. 생성형 AI를 자주 사용하는 20대 4명 중 1명(24.5%)은 AI를 통해 심리 상담을 해본 경험이 있었다.

왜 Z세대에게 '감정'이 중요해진 걸까? 이는 오늘날 시대 환경과 무관하지 않다. 초개인화와 장기 불황, 일상적 갈등 같은 요인들이 점점 심화되면서 불안과 피로가 누적됐고, 유별난 날씨 덕에 '기후 스트레스'가 더해지면서 감정의 소용돌이를 낳는 기폭제 역할을 했다. 급변하는 글로벌 정세와 AI의 발전은 'FOMO' 현상(소외불안증후군)과 함께 불확실성을 극대화했다. 이러한 시대 환경 속에서 Z세대는 '변하지 않고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내면의 안정에 대한 관심은 데이터에서도 드러난다. 대학내일20대연구소가 지난해 4월 전국 15~64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삶에서 반드시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와 Z세대의 순위는 서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먼저 전체 순위에서는 건강(66.7%)이 압도적인 1위였고, 이어 체력(54.2%), 현금성 자산(52.7%), 멘탈·정신력(51.3%), 가족(50.1%) 순이었다. 반면 Z세대는 건강(1위, 55.7%)과 멘탈·정신력(2위, 55.0%)의 차이가 단 0.7%p밖에 나지 않았고 이어 체력(49.7%), 침·휴식(48.0%), 자존감(47.7%) 등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고 인식했다. 전체 순위에 있던 '현금성 자산'은 5위 밖으로 밀려났으며, 전체 순위에 없던 침·휴식, 자존감 등의 요소가 5위 내에 올라섰다. 이러한 데이터를 통해 Z세대가 감정 관리를 중시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Z세대가 감정 관리에 관심을 갖는 것은 오늘날 관계 방식의 변화와도 관련이 있다. 이전 시대에는 고민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친구에게 터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당연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스트레스나 감정을 해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은 '느슨한 연대'를 넘어 '인지적 연대'¹로 불리는 관계 방식이 새롭게 나타나고 있다. 대학내일20대연구소가 지난해 2월 전국 15~64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친구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를 조사한 결과, 86세대와 X세대는 '힘들 때 의지가 되어주거나 위로해주는 것'을 1위로 꼽았다. 반면 Z세대는 '예의를 지키고 배려하는 것'(49.7%)을 1위로 꼽아 차이를 보였다.

¹ 개인의 취향과 지향이 세분화된 초개인화 시대, 서로 다름을 인지하며 관계를 가꾸는 Z세대의 특성을 드러낸 키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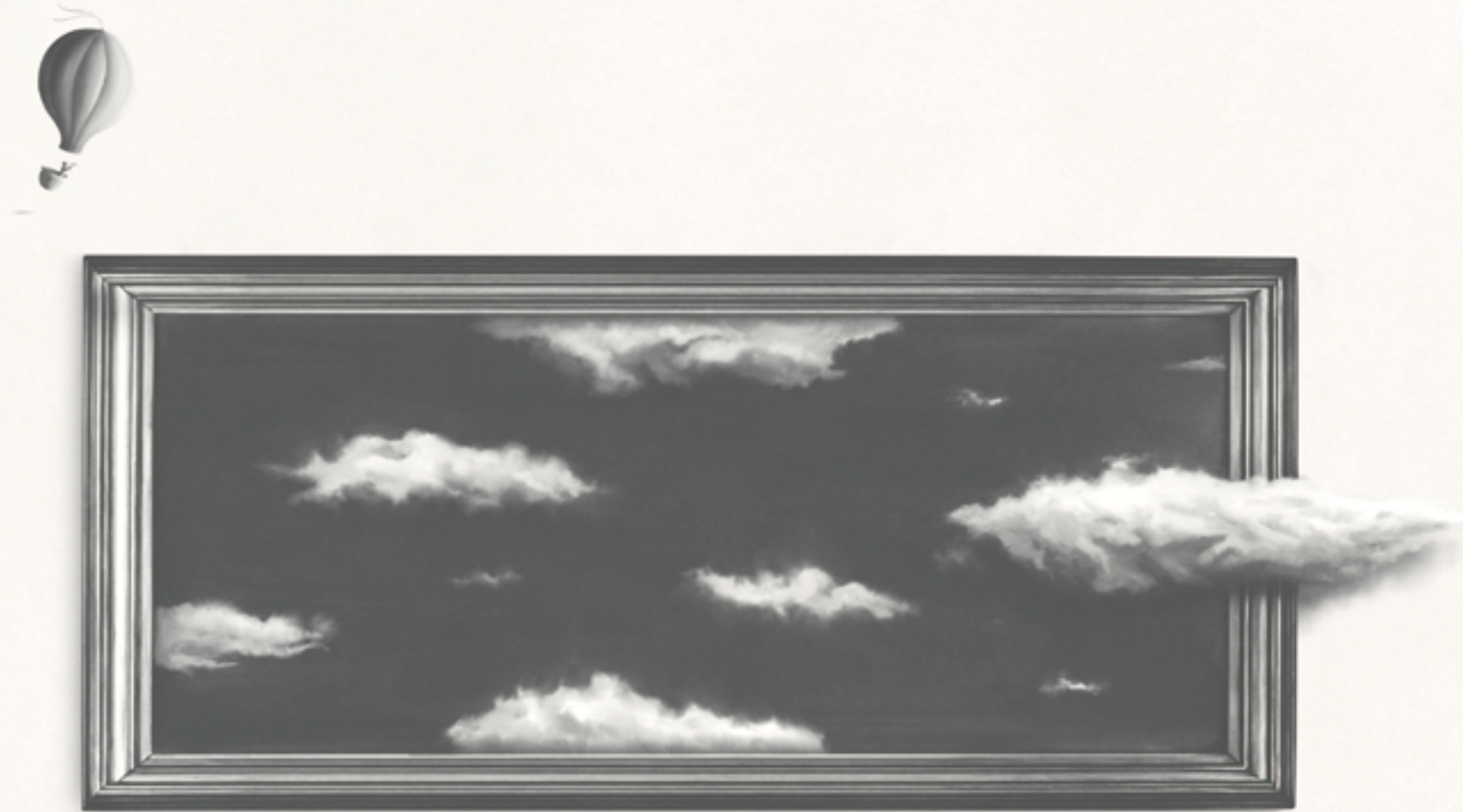
또 Z세대는 '친구가 싫어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41.0%)을 '의지·위로 해 주는 것'(39.0%)보다 중시했다. 과거의 친구 관계가 모든 일상과 고민을 공유하고 의지가 되어주는 것이 당연했다면, Z세대는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고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Z세대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도 감정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 콘텐츠에서 간접적으로 감정을 익히기도 하고, AI를 고민의 창구로 활용하며 직장 상사나 친구와의 관계 유지에 동원하기도 한다. 즉 Z세대에게 '감정 관리'는 내면의 안정을 지키는 것뿐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 유지를 위한 역량으로도 여겨지고 있다.

Z세대의 감정 객관화 도구

Z세대는 비교적 객관적인 언어로 자신의 감정을 직시한다. 또한 개인화된 방식으로 감정 관리에 나선다. 먼저 Z세대가 감정 객관화에 주로 활용되는 도구를 살펴봤다. 최근 젊은 층은 'HSP(초민감자)' 자가 진단 테스트를 한 뒤 SNS에 결과를 공유하곤 한다. 지난 수년간 한국인의 성향을 파악하는 데 활용됐던 MBTI 검사에 이어 '셀프 분석'에 관심인 Z세대 사이에서 이 HSP 테스트도 지속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HSP는 단순히 성격 파악 용도가 아니라, 평소 겪고 있던 감정적 불편함의 원인을 깨닫게 해준다는 점에서 각광받고 있다. 이처럼 Z세대는 부정적인 감정을 막연히 '기분 탓'이라고 치부하며 불투명하게 넘기기보다는, 지금 내가 왜 불안하고 왜 기분이 안 좋은지 객관적으로 알아보려 한다. 또 다른 '감정 객관화 도구'는 바로 AI다. Z세대는 AI를 업무나 학업을 돕는 데서 나아가, 평소 지니고 있던 고민에 대해 위로와 공감을 구하며 감정을 관리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실제로 대학내일20대연구소가 지난해 10월 전국 15~59세 남녀 400명을 대상으로 '감정을 관리하기 위해 한 행동'을 조사한 결과(복수 응답), 20대는 '생성형 AI에게 질문 및 대화하기(38.8%)' 응답률이 전체 응답자(20.0%)에 비해 훨씬 높았다.

산책, 수면, 샤워가 특별해진 이유

객관적인 언어로 감정을 파악한 Z세대는 개인화된 방식으로 감정을 관리한다. 가령 스트레스, 피로, 무력감 등의 감정을 최대한 세밀하게 분류한 뒤 이를 코르티솔과 도파민, 멜라토닌 같은 호르몬과 연결 짓는다. 소셜 빅데이터를 통해 '코르티솔' 키워드 언급량을 분석한 결과, 2025년 상반기 언급량(13만 1,676건)이 이미 2024년 언급량(9만 2,540건)을 1.5배 웃돌았다. 코르티솔의 연관어로는 관리·유지 맥락의 키워드가 두드러졌으며, 특히 '루틴(1,300%)' 언급량이 폭증했다. 과거 질환·치료 영역에서 주로 언급되던 코르티솔이 이제 스트레스 관리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루틴의 요소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
객관적인 언어로 감정을 파악한 Z세대는
개인화된 방식으로 감정을 관리한다.
가령 스트레스, 피로, 무력감 등의 감정을
최대한 세밀하게 분류한 뒤 이를
코르티솔과 도파민, 멜라토닌 같은
호르몬과 연결 짓는다.
”



한동안 Z세대의 루틴은 운동과 자기계발 등을 통해 '갯생'을 유지하고, 신체 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에 집중돼 왔다. 그런데 이제 자기 감정을 관리하려는 목적으로 확장되고 있다. 최근 '수면'이 주목받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틱톡 등 해외 SNS에서는 감정 관리와 관련한 수면 루틴으로 '다크 샤워'가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다크샤워는 강한 불빛이 코르티솔을 높이고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한다는데서 착안됐다. 잠들기 전에 불을 끄거나 어두운 상태에서 샤워를 함으로써 수면의 질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학내일20대연구소가 지난해 10월 전국 15~55세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한민국 20대의 과반(56.3%)도 수면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다고 답했다. 이들은 '숙면을 통해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피로체력(57.3%)뿐만 아니라 스트레스(47.8%)와 기분(41.4%)을 꼽기도 했다.

'무해력' 다음 가치는 '다정력'

Z세대가 추구하는 메타센싱은 개인의 감정 관리에 그치지 않고, 타인과의 관계를 유지하거나 개선하는 방향으로 활용되고 있다. 대학내일 20대연구소는 Z세대의 인식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매년 동일한 질문을 던진다. 그중 하나가 바로 추구하는 롤모델이나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묻는 것이다. 어떤 해에는 '자신만의 취향이 뚜렷한 사람'이 언급됐는데, 지난해에는 유독 '다정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응답이 많았다. 실제로 '다정함은 체력에서 나온다'라는 유명인의 말이 SNS에서 어록으로 회자되기도 하고, '다정한 사람이 이긴다', '다정함이 인격이다' 처럼 '다정'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간 책이 베스트셀러에 오르기도 했다. 평범한 일상생활 중 낯선 사람과 다정한 대화를 나누는 스물토크 영상도 다정한 콘텐츠로 주목받고 있다. 이처럼 메타센싱은 우리 사회에 결핍된 다정함과 여유를 되찾는 방식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를 보면 Z세대가 메타센싱을 통해 채우려고 한 것은 지금 이 시대에 희소해지고 있는 다정함과 배려 같은 가치일지도 모른다. 이제 '감정 관리'는 역량의 하나로, 자기 관리의 핵심으로 여겨지면서 관련 영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메타센싱을 통해 Z세대에 대한 힌트를 얻게 되기를 기대한다.

봄빛으로 물든 작품들



스물다섯, 스물하나

채널 tvN(16부작)

출연 김태리, 남주혁

겉으로 보면 익숙한 청춘 로맨스 같지만, 이 작품이 오래 사랑받은 이유는 따로 있다. 꿈이 흔들리는 순간의 불안, 현실 앞에서 멈칫하는 마음,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용기를 유난히도 솔직하게 담아냈기 때문이다. 꽃이 피기 전 긴 겨울을 견디는 봄처럼, 청춘 역시 방향과 좌절을 지나 단단해진다. 그래서 이 드라마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새로운 계절의 문턱에서 건네는 작은 응원처럼 다가온다. 보고 나면 마음 한편에 “나도 다시 시작해 볼까” 하는 용기가 조용히 움튼다.

드라마

구르미 그린 달빛

채널 KBS2(18부작)

출연 박보검, 김유정

궁궐이라는 닫힌 공간 속에서도 두 청춘의 시간은 천천히 피어난다. 서로를 향한 마음은 조심스럽게 번지고, 그 위로 왕세자의 의무와 신분의 벽, 권력의 소용돌이가 겹겹이 드리워진다. 그럼에도 두 사람은 흔들리면서도 자신의 선택을 고민하며 조금씩 성장해 간다. 화사한 한복의 색감과 부드러운 대사, 달빛처럼 잔잔한 감정선은 화면 가득 봄의 기운을 채운다. 벚꽃이 흩날리는 저녁, 창가에 기대어 조용히 켜 두기 좋은 이야기처럼 마음에 은은한 여백을 남긴다.



봄밤

채널 MBC(32부작)

출연 한지민, 정해인

오래된 관계의 균열과 새로운 사랑의 시작 앞에서 흔들리는 마음을 현실적으로 그려낸 멜로 드라마다. 도서관 사서 정인은 권태로운 연애 속에서 약사 지호를 만나고, 두 사람은 서로의 일상에 스며들 듯 가까워진다. 가족의 기대와 사회적 시선, 각자의 사정은 감정을 쉽게 허락하지 않지만 마음은 조용히 방향을 찾아간다. 화려한 사건 대신 눈빛과 대화, 사소한 선택들이 차곡차곡 쌓이며 사랑의 의미를 되묻는다. 밤공기처럼 잔잔하게 불어오는 감정이 3월의 봄별 같은 따뜻함을 전한다.



멜로가 체질

채널 JTBC(16부작)

출연 천우희, 안재홍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샴푸향이 느껴진거야’라는 노래를 들으면 자연스레 떠오르는 드라마. 서른 살, 저마다 다른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세 친구의 일상과 사랑을 유쾌하게 그려 낸 작품이다. 일과 연애, 꿈과 생활 사이에서 흔들리지만 결국 서로의 곁에서 균형을 찾아가는 모습은 봄날의 산들바람처럼 가볍고 따뜻하다. 웃다가도 문득 마음을 건드리는 대사 한 줄이 평범한 하루를 조금은 특별해 보이게 만든다. 일상의 곁을 섬세하게 비추는 이 작품은 소소한 웃음과 잔잔한 위로를 동시에 건넨다.

출처 내이비영화, 각 채널 제공



제주 바다처럼 깊고 넓은 이야기.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마다의 사연을 품고 흔들리며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그린다. 청춘부터 노년까지 이어지는 인물들의 시간은 우리의 일상과 맞닿아 있고, 푸른 바다와 돌담길, 노을 진 골목의 풍경은 감정을 부드럽게 감싼다. 웃음과 눈물이 번갈아 스미는 전개 속에서 시청자는 타인의 삶을 통해 자신의 하루를 돌아보게 된다. 화려하지 않지만 오래 남는 위로처럼, 평범한 날의 온도를 천천히 높여 주는 드라마다.

우리들의 블루스
채널 tvN(20부작)
출연 이병헌, 신민아





반복되는 일상 속에 머물던 한 남자가 한 걸음 밖으로 나가며 삶의 장면을 새로 써 내려가는 이야기다. 상상 속에서만 영웅이던 월터는 뜻밖의 임무를 계기로 그린란드에서 시작된 여정을 떠나게 되고, 머릿속 모험이 현실이 된다. 두려움을 넘는 선택 하나가 인생의 방향을 바꾼다는 메시지는 봄바람처럼 상쾌하다. 화면을 가득 채우는 풍경과 음악은 “나도 한 번 떠나 볼까” 하는 마음을 조용히 깨운다.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감독 벤 스틸러 출연 벤 스틸러
러닝타임 114분 개봉일 2013년 12월 31일



영화 <레사마 공원에서>는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 세상을 바라보는 두 친구의 우정을 담아낸 작품이다. 이들은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어딘가 서툰고 고집스러운 사람들과 가족 사이의 묵은 갈등을 유쾌하게 풀어내며 하루를 보낸다. 사소한 오해도, 오래된 앙금도 봄 햇살 아래에서는 조금은 부드럽게 녹아내린다.

레사마 공원에서

채널 넷플릭스 출연 루이스 브란도니, 에두아르도 블랑코
오픈일 2026년 3월 6일

파반느

채널 넷플릭스 출연 고아성, 변요한, 문상민
오픈일 2026년 2월 20일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아가던 세 사람이 서로에게 작은 빛이 되어 삶과 사랑을 다시 바라보게 되는 이야기다. 서로 다른 상처를 지닌 인물들은 마주 선 시간을 통해 조금씩 변화하고, 자신만의 속도로 성장해 간다. 원작 소설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가 사회의 변두리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애절한 사랑을 섬세하게 그려 많은 공감을 얻었듯, 드라마 역시 조용하지만 깊게 스며드는 감정선을 이어간다. 얼어 있던 마음을 천천히 녹여 주는 전개는 막 돌아온 새싹처럼 은은한 희망의 기운을 남긴다.

OTT



샤이닝

채널 JTBC 출연 박진영, 김민주
오픈일 2026년 3월 6일

이 작품은 열아홉의 여름방학, 처음 사랑을 알게 된 두 청춘이 시간이 흐른 뒤 다시 만나 서로의 삶을 비추는 '빛'이 되어 가는 과정을 그린 드라마다. 서른이 되어 우연히 재회한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다른 시간을 살아왔지만, 다시 마주한 순간 일상에 작은 균열과 변화를 맞이한다. 지하철 기관사로 묵묵히 하루를 살아가던 태서는 은아를 통해 잊고 있던 감정과 가능성을 떠올리게 된다. 한때 서로의 계절이었던 두 사람이 어떤 빛으로 남게 될지, 이 드라마는 청춘의 기억과 현재의 시간을 잔잔히 비추며 눈부신 3월의 봄빛처럼 마음 한켠을 환하게 물들인다.



건축학개론

감독 이웅주 출연 임태웅, 한기인, 이제훈, 수지
러닝타임 118분 개봉일 2012년 3월 22일

스무 살의 설렘과 서른다섯의 재회를 오가며 첫사랑의 기억이 어떤 온도로 남는지를 그린 작품이다. 서툰 표현과 작은 오해로 멀어졌던 두 사람은 15년 뒤 다시 같은 공간을 바라보며 지나간 계절을 마주한다. 집이 완성될수록 묻어 두었던 감정이 천천히 되살아나고, 햇살 같은 화면과 음악은 봄날의 공기를 닮은 따뜻한 기억을 마음에 오래 머물게 한다.

영화



아이들의 시선으로 그려 낸 서툰고 투명한 첫사랑 이야기. 따뜻한 색감과 커다란 나무, 햇살이 번지는 골목의 풍경은 화면 가득 봄빛을 채운다. 말 대신 전해지는 작은 행동들과 수줍은 시선은 보는 이의 마음을 부드럽게 두드리며, 기억 속 첫 설렘을 다시 불러낸다. 새잎이 돋아나듯 감정이 피어나는 순간들이 봄날의 낭만을 한층 짙게 만든다.

플립

감독 로브 라이너 출연 매들린 캐롤, 켈런 맥오리피
러닝타임 90분 개봉일 2017년 7월 12일

일과 삶의 중간에서 함께 빛나는 심포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문득 쉬어가고 싶을 때,
새로운 경험을 통해 휴식의 의미를 찾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희는 그렇게 새로운 것들을 찾아다니며 친해졌습니다.
새해가 시작되고 “이번엔 어떤 걸 해볼까?” 둘러보던 차에
‘RE:CHARGE’ 코너를 알게 되었어요.
전통주를 직접 빚으며 화보 촬영까지 한다니,
새해 첫 번째 휴식으로 딱이지 않나요?

글 오주홍 경남본부 경영지원부 대리 사진 황지현

여행을 가면 종종 그 지역의 양조장을 방문하곤 합니다. 맥주를 생산하는 브루어리나, 포도밭과 함께 꾸며진 와이너리도 좋지만 지역 쌀로 만드는 전통주 양조장을 방문하는 일도 국내 여행을 더욱 재밌게 만드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경남본부 오주홍 대리를 중심으로 그와 동갑내기인 경남본부 최가온 대리, 멘토선배로 인연을 맺은 고흥지사 김현미 대리가 오늘, RE:CHARGE 코너에 참여하기 위해 경상남도 창원에 모였습니다.

막 걸러낸 술, 막걸리

열 가지가 넘는 전통주를 시음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인데, 저희도 본격적인 체험에 앞서 오늘 만들 막걸리와 비슷하다는 발효 막걸리를 맛보았습니다. 적당히 묵직하고 달큰한 맛이 입안을 기분 좋게 맴돌며 “우리가 만들 건 더 맛있을 거예요.”라는 강사님의 말씀에 괜히 의욕이 솟았습니다.

체험 공간에 들어서자 과학 실험실을 연상케 하는 비커와 저울, 각종 가루들이 유리 용기에 담겨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앞에 나란히 앉아 막걸리에 대한 이론을 들으며 체험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만들 막걸리는 물, 누룩 등을 정확한 비율로 섞어 발효시키는 생탁입니다. 막걸리는 쌀과 물의 함량에 따라 발효의 속도와 완성도, 도수가 달라지는데 특히 쌀의 비중이 높으면 단맛과 감칠맛이 올라가고, 물이 많이 들어가면 산미가 도드라진다고 합니다. ‘막 걸러낸 술’이라는 막걸리라는 설명까지 듣고 나니 이름도 새삼 귀엽게 느껴졌습니다.



↓ 경남본부 오주홍 대리를 중심으로 그와 동갑내기인 경남본부 최가온 대리, 멘토 선배로 인연을 맺은 광주전남본부 김현미 대리





누구보다 맛있는 막걸리를 위해서

‘나만의 막걸리 빚기’는 총 세 단계로 진행됩니다. ‘나만의’ 막걸리를 위해 재료를 담아 발효시킬 항아리에 그림을 그리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보통 이 단계에서 어떤 그림을 그릴지 고민하느라 시간을 많이 뺏긴다던데 저희는 너나 할 것 없이 빠르게 그림을 그려나갔습니다. 두 번째는 재료를 계량하는 단계입니다. 물 1,300ml에 쌀, 입국, 누룩 같은 다른 재료들을 각각 비율에 맞게 담아 물에 개어야 합니다. 저희는 누구보다 맛있는 막걸리를 만들겠다는 마음으로 경쟁하듯 강사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무게를 잰습니다. **(오주홍 대리)** 정확도가 중요하다고 하셔서 0.01g까지 맞추려고 굉장히 집중했습니다. 오늘 쓸 에너지를 여기서 다 쓴 것 같아요.

마지막 단계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힘이 많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막걸리 항아리에 모든 재료를 넣고 손으로 직접 섞어 반죽을 만들어야 합니다.

(김현미 대리) 저는 이 과정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강사님이 “조금만 더 힘내세요!”라며 응원해주실 정도로 팔이 아팠는데, 앞에 있던 오주홍 대리한테 반죽이 잔뜩 묻은 걸 보고 웃음이 터졌습니다.

(오주홍 대리) 너무 열심히 젓다가 온 팔에 다 묻어버려서 정확히 계량한 게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강사님께서 피부가 좋아질거라며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충분히 섞었다고 생각했는데도 반죽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강사님께서 눈으로만 봐도 반죽 상태를 알 수 있다며 구석구석 잘 섞으라고 하셨고, 다시 한참을 저은 뒤에야 “됐습니다”라는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기다림까지 막걸리

드디어 최종. 최종. 최종입니다. 손을 씻고 지니에게 소원을 빌 듯 항아리를 정성스레 닦아냅니다. 반죽을 만들며 지저분해진 항아리 입구를 깨끗하게 정돈해야 효모가 노출되지 않고 발효가 잘되기 때문입니다. 항아리 뚜껑에 오늘 날짜를 적고, 잘 만들어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뚜껑을 단단히 닫았습니다. 2~3일 후부터는 막걸리를 마실 수 있지만 열흘 정도 지났을 때 가장 맛있다고 합니다. 모든 과정에 정성을 기울여 막걸리를 빚고, 다시 또 열흘을 기다려야 한다니, 그 기다림까지 막걸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Mini interview



오주홍

경남본부 경영지원부 대리

평소 이것저것 시도해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예전에 울산에 있는 복순도가 양조장을 방문했을 때 양조장을 못 봐서 아쉬웠거든요. 오늘 직접 만들어보니 훨씬 재밌었습니다. 각자 제 지인들이라 어색할까 걱정했는데 막걸리를 빚으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져서 좋았습니다.

- **막걸리와 함께 추천하고 싶은 것들** 눈이 많이 오는 날, 바삭바삭한 김치전

최가은

경남본부 요금관리부 대리

막걸리는 마시는 걸 좋아했지, 만드는 과정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직접 만들어보니 다른 술도 만들어보고 싶어졌어요. 빚는 과정에서의 미묘한 차이나 숙성 시간에 따라 얼마나 술맛이 달라질지 궁금합니다. 오늘 만든 막걸리가 제일 맛있을 때가 마침 설 명절이어서 품평회라도 한번 열어야 할까요.

- **막걸리와 함께 추천하고 싶은 것들** 등산 후 내려와서 파전에 막걸리 한 잔



김현미

고흥지사 고객지원팀 대리



체험 후에 다양한 전통주도 시음해볼 수 있어 재밌었습니다. 몇 가지가 특히 맛있어서 돌아가는 길에 가족들과 함께 마실 술도 한 병씩 샀어요. 열심히 막걸리 반죽도 빚고, 집까지 술도 사가느라 다음날까지 팔이 아팠지만 그만큼 기억에 남는 경험이었습니다.

- **막걸리와 함께 추천하고 싶은 것들** 막걸리에는 역시 파전이 잘 어울리지 않을까요

**家釀酒
가양주**

아주 오래 전부터 우리 민족은 가정에서 술을 빚어 마셨습니다. 이렇게 집에서 만드는 술을 가양주 家釀酒라고 합니다. 화학적 첨가물 없이 곡물과 누룩, 물로 빚는 것이 전통적인 가양주의 특징인데, 지역이나 가문, 빚는 사람의 솜씨에 따라 재료와 방식이 달라졌기에 같은 종류의 쌀이라도 그 맛과 향기는 다양했다고 합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싶어지는 3월, 주변의 전통주 양조장에서 함께 전통주를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한국관광공사 블로그
전통주 빚기 성지순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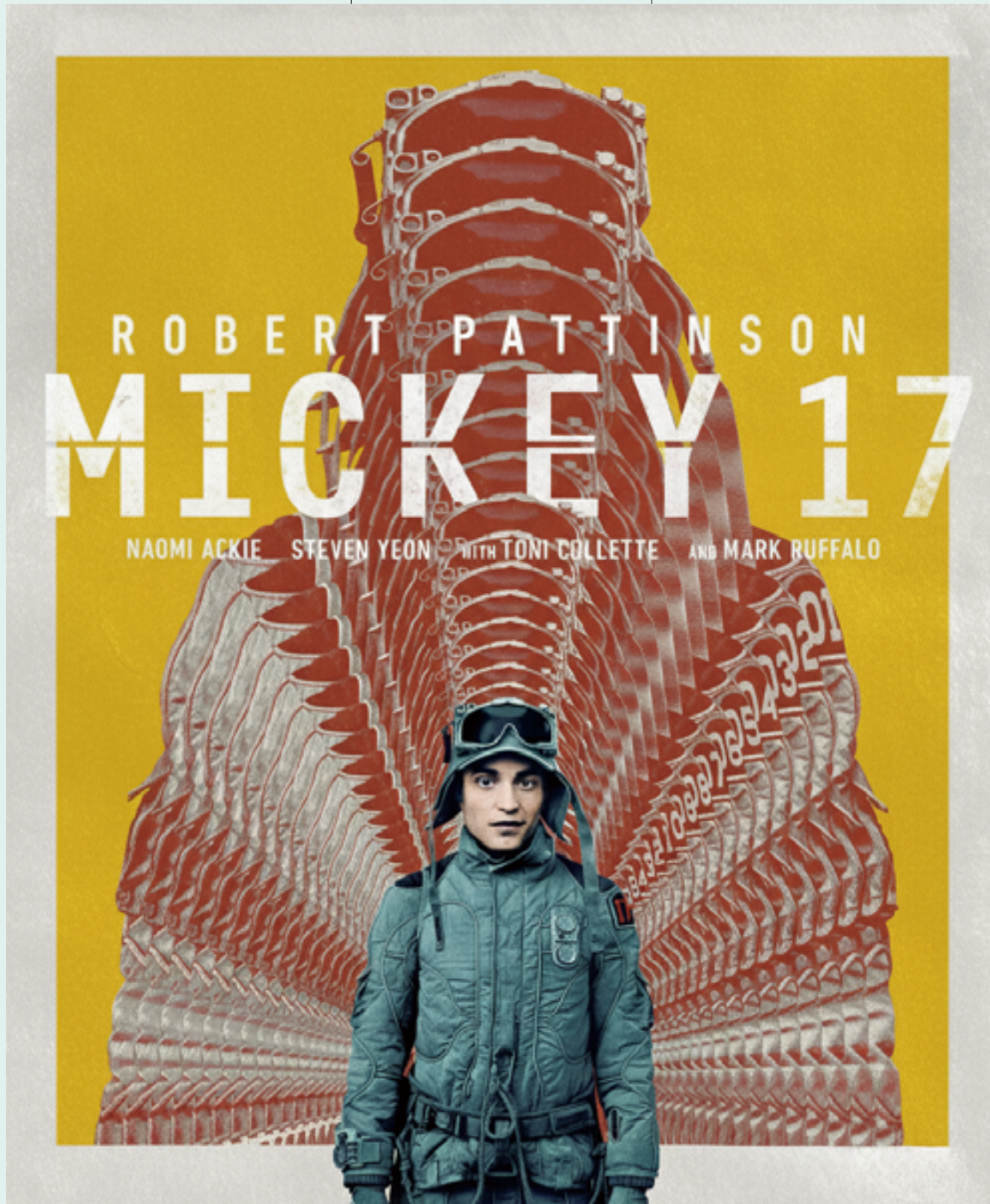


그린매거진
우리 전통주 만들기

과학으로 본 영화 <미키 17>

뇌를 닮은 반도체, 뉴로모픽

글 정희빈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선임연구원



출처 네이버영화, 게티이미지뱅크

영화 <미키 17>에서 주인공은 죽을 때마다 새로운 몸이 만들어지고 뇌를 스캔한 백업 정보가 업로드되어 다시 살아난다. 머릿속 정보가 디지털 데이터로 저장되는 것은 과연 가능할까. 인간 뇌의 작동 방식을 모방한 뉴로모픽 반도체는 그 해답을 찾으려는 기술이다. 피지컬 AI 시대에 핵심으로 활약할 뉴로모픽 기술에 대하여 알아보자.



뇌를 복제하려는 마음과 뉴로모픽의 등장

사람은 누구나 오래 살고 싶어 한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젊음을 유지한 상태로 오래 살고 싶어 한다. 노화가 일어나고 있는 육신에서 뇌만 떼어내어 젊고 건강한 신체로 옮겨 타는 상상은 영화에서도 자주 다뤄진다. 2008년 개봉한 영화 <더 게임>에서는 가난한 화가인 주인공이 병을 앓고 죽어가는 재벌집 회장과 젊음을 걸고 일생일대의 내기를 한다. 뇌와 척수를 모두 들어내어 교체하는 이식 수술을 통해 젊음을 되찾을 수 있다는 설정이다. 하지만 수술로 뇌를 통째로 옮기는 방식은 기술적으로 매우 위험하고 현실에서 실현하기에는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다면 더 안전한 방법, 예컨대 외과적 수술 없이 내 머릿속 정보를 복사하여 다른 몸에 업로드하는 방법은 없을까? 작년 개봉하였던 봉준호 감독의 영화 <미키 17>에서는 상상 속 기술을 통하여 이를 구현하였다. 빛에 허덕이던 주인공이 도망치듯 지원한 곳은 우주 개척선에서의 익스펜더블(소모품)이다. 말 그대로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다가 죽으면 대체되는 소모품이다. 주인공의 신체는 죽을 때마다 새롭게 프린팅되어 만들어지고 미리 백업해두었던 기억이 업로드되어 다시 임무에 투입된다. 육체는 소모품처럼 교체되지만 '나'라고 부를 수 있는 정체성은 데이터처럼 백업되고 영구히 보존되는 셈이다. 물론 영화에서처럼 인간의 몸을 3D 프린팅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아직 공상과학에 가깝다. 두뇌 속 정보를 디지털 형태로 스캔하여 기록하고 다시 입력하는 마인드 업로딩 기술도, 수백억 개의 뉴런과 수조 개의 시냅스로 이루어진 인간 뇌의 복잡성 때문에 여전히 요원한 기술이다. 하지만 영화에서 뇌를 백업하는 장면이 유난히 그럴듯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 일상에서도 이미 기억의 외주화에 익숙해졌기 때문이다. 전화번호는 스마트폰이 대신 기억하고 있으며 길을 찾기 위해 기억을 더듬는 대신 지도 앱에 의존한다. 이렇게 인

간의 인지 기능 일부를 디지털 도구에 맡기는 흐름은 결국 뇌의 정보 처리 방식을 기계로 옮겨 담고 싶다는 욕망으로 이어진다. 이를 공학적 관점에서 번역한 기술이 바로 '뉴로모픽(Neuromorphic)'이다. '신경(Neuro)'과 '형태(Morphic)'가 결합된 단어인 뉴로모픽은 인간 뇌 자체를 복사한다는 SF적 발상보다는, 수십억 년 동안 진화하며 최적화되어 온 뇌의 작동 원리를 반도체 설계에 모방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뇌는 어떤 작동 원리를 가지고 있으며 기존 반도체의 그것과는 어떻게 다를까? 우리에게 익숙한 컴퓨터들은 대개 폰 노이만 구조라 불리는 설계에 따라, 계산을 수행하는 연산 장치(CPU/GPU)와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DRAM)가 분리되어 있고 데이터가 둘 사이를 이동하는 구조이다. 문제는 데이터가 두 영역 사이를 오가는 과정에서 시간과 에너지가 소모됨에 따라 병목 현상(폰 노이만 병목)이 일어나고, 인공지능(AI) 모델처럼 데이터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수록 이 현상은 더욱 두드러진다. 데이터가 이동하는 통로를 넓혀서 병목 현상을 완화시킬 수는 있어도, 이 과정에서 소모되는 전력과 발열 문제는 근본적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반면 뇌에는 신경계를 이루는 기본 단위인 뉴런과 뉴런끼리 연결되는 접합 부위인 시냅스가 그물처럼 촘촘히 퍼져 있다. 학습과 기억

은 시냅스 연결 강도가 바뀌면서 신경망 회로 자체에 새겨진다. 즉, 계산하는 장소와 저장하는 장소가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저장된 상태가 곧 다음 계산을 결정하는 재료가 되는 셈이다. 또한 뇌는 전구 하나 수준의 전력(약 20W)으로 감각, 언어, 추론 등 고차 기능까지 동시에 수행하는데, 기존 컴퓨터로 이 같은 작업을 처리하려면 훨씬 더 많은 전력을 소모해야 한다. 이러한 고효율이 가능한 이유는 뇌에서 모든 정보를 끊임없이 계산하는 것이 아닌, 필요할 때만 적절히 반응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귀는 소리를 계속 듣고 있지만 모든 소리를 매 순간 분석하여 기록하지는 않는다. '내 이름을 부르는 것 같다', 혹은 '유리컵이 떨어졌다'처럼 의미 있는 입력값이 있을 때만 집중하여 반응한다. 이러한 방식은 불필요한 정보 처리와 저장을 줄여 에너지를 절약한다.

연산과 저장을 한 번에 처리하는 뉴로모픽 칩

뉴로모픽 반도체는 뇌의 이러한 작동 원리를 차용하여 기존 반도체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흐름에서 생겨났다. 핵심은 정보의 저장과 계산을 같은 자리에서 처리하는 뇌의 특징을 반도체 회로에 옮겨 놓은 것이다. 뉴로모픽 칩 안에는 많은 인공 뉴런과 시냅스 소자¹가 촘촘히 배치되어 있는데, 시냅스 가중치를 소자에 직접 저장함으로써 회로 자체가 곧 기억이 되게 만들었다. 덕분에 매 연산마다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꺼내 CPU/GPU로 옮기는 대신, 저장된 가중치가 있는 자리에서 곧바로 연산이 일어나도록 만들어 데이터 왕복으로 인한 비효율을 크게 줄였다. 마치 주방에서 요리사(연산 장치)가 재료(데이터)를 꺼내기 위해 냉장고(메모리)까지 왕복하느라 요리 시간이 늘어나지 않도록 냉장고를 요리사와 같은 공간에 두는 것이다. 데이터 왕복을 줄인 이유는 단순히 계산 속도를 높여서 최대치의 성능을 내는 것이 아니다.

¹ 뇌의 시냅스처럼 인공뉴런 간의 연결 강도를 조절하는 장치



↑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 영화 <미키 17>은 "기술적으로 인간을 복제하고 기억을 전송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인간의 존엄성과 '나'라는 정체성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라는 과학 철학적 질문을 던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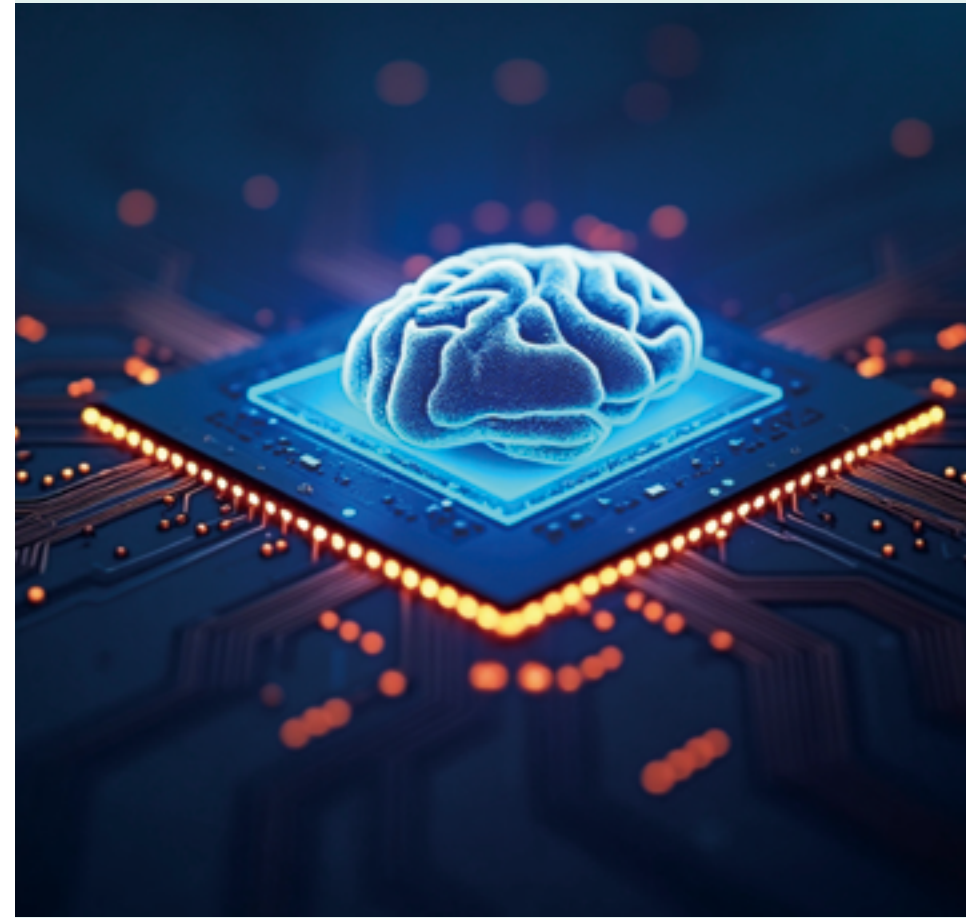
뉴로모픽 칩이 겨냥하는 목표는 우리 뇌처럼 필요한 순간에만 계산 능력을 발휘하여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것이다. 아무 변화 없는 장면을 계속 보고 있으면 뉴로모픽 시스템은 거의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며 에너지를 아끼는데, 우리가 조용한 풍경을 볼 때 뇌가 활동하지 않고 쉬는 것과 비슷하다. 뇌가 잘하는 것은 끊임없이 계산하는 것이 아닌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일이고, 뉴로모픽은 그 특징을 반도체 회로에 옮겨 놓은 기술이다.

피지컬 AI 시대에서의 가능성

뉴로모픽 반도체 기술이 가장 빛나는 무대는 최근 주목받는 피지컬 AI 분야이다. 피지컬 AI는 ChatGPT처럼 화면 속에서만 판단하고 답을 주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카메라와 촉각 센서로 현실 속 정보를 받아들이고 모터, 관절 등을 직접 움직여 결과를 만들어내는 AI를 일컫는다. 올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 'CES 2026'에서도 피지컬 AI가 큰 화두였다. 현대차그룹 로봇 계열사 보스턴다이내믹스는 차세대 전동식 휴머노이드 로봇인 아틀라스를 공개하며 로봇 대중화의 비전을 보여주었고, LG전자는 혼자서 빨래를 접고 정리하는 가정용 휴머노이드를 선보여 화제를 끌었다. 피지컬 AI가 더 이상 연구실 안에서만 구현되는 미래 기술이 아닌, 산업 현장과 가정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물리적인 신체가 생기는 순간 AI의 고민거리도 바뀐다. 창고에서 박스를 집는 로봇팔은

출처 보스턴다이내믹스



↑ '신경(Neuro)'과 '형태(Morphic)'가 결합된 단어인 '뉴로모픽(Neuromorphic)'



미끄러짐을 감지한 즉시 힘을 조절해야 하고, 자율주행 자동차는 교차로에서 보행자의 작은 움직임에도 바로 반응해야 한다. 획직한 영상을 클라우드로 보내고 답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ms(밀리초) 단위의 지연이라도 생긴다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로봇은 콘센트가 아니라 배터리로 움직이기 때문에 충분히 긴 가동시간 역시 중요해진다. 또한 카메라와 마이크를 통해 집 안에서 생성된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되면 프라이버시 문제도 생긴다. 뉴로모픽은 뇌처럼 변화가 있을 때만 선택적으로 작동하고 연산과 저장을 한꺼번에 처리함으로써, 속도 지연과 전력 소모 문제를 동시에 극복할 수 있다. 여기에 변화가 일어난 부분만 민감하게 포착하는 이벤트 기반 센서가 결합되면 로봇은 꼭 필요한 정보만 받아 처리하게 되어 데이터양이 확연히 줄어들고, 네트워크 연결이 불안정하더라도 시스템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데이터 처리가 외부 클라우드를 통하지 않고 기기 내부에서 종료되기 때문에 데이터 유출과 같은 프라이버시 문제에서도 유리하다. 피지컬 AI 시대에서는 거대한 두뇌보다 현장에서 가볍고 빠르게 판단하는 신경칩이 더 절실하고, 뉴로모픽이 바로 그 역할인 것이다.

작은 AI가 일상이 되는 시대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뉴로모픽 반도체는 점차 우리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전망이다. 공장 로봇과 자율주행 자동차뿐 아니라, 스마트폰 카메라, 소음 차단 이어폰, 음성 인식 스마트워치 등 주머니 속 작은 기기들까지 필요한 순간에만 효율적으로 움직이며 개인 정보는 안전하게 지켜진다. AI가 탑재된 기기는 더 작고 빨라지며 실생활에 밀착하여 존재하고, AI 기술을 일상 속 모든 사물에 적용하는 '엣지 AI' 시대는 가속화된다. 언젠가 영화 <미키 17>처럼 뇌 전체를 백업하는 현실이 올지 단정할 수는 없지만, 뇌의 방식처럼 움직이는 칩 덕분에 세상은 더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일 것이다.

무엇이든 사랑하세요!

20년 ‘막내’들의 의리!
세상에 빛을 전하는
‘끈끈한’ 동행

글 송재득 전북본부 배전운영부 과장

회사가 맺어준 인연으로 시작해, 이제는 서로의 삶을 지탱하는 버팀목이 된 우리 7명의 단원. 이 끈끈한 우정이 있는 한, 전북본부 전기원 봉사단의 불빛은 결코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100세대를 향한 약속,
우리는 하나입니다

첫 봉사를 마쳤던 날, 붉게 물든 노을을 바라보며 돌아오던 길에 우리 단원들은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가슴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몽글한 감동을 공유하면서, 우리는 삼겹살을 구워 먹으며 서로의 활약상을 뽐내고 한바탕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는 2026년 3월 20일, 완주군 동상면 일대에서 대망의 100번째 세대 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년 전 서툴렀던 막내들은 이제 베테랑이 되어 세상의 어두운 구석을 밝히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마음이 만드는 환한 세상

야간 근무를 마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도 “봉사활동을 하면 오히려 행복하다”라며 달려와 주는 단원들이 있어 이 자리가 가능했습니다. 또한 물심양면으로 액션으로 지원해 주신 전북본부 배전운영부 김중은 부장님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변치 않는 마음으로 곳곳의 어두운 곳에 불을 밝히며 회사에서 만난 소중한 인연들로 한국전력 배전전기원으로서의 자부심을 이어가겠습니다.

“술잔 대신 사랑을 전하자”
2008년 막내들의 약속

2008년, 전북본부 직할 배전운영실의 4개 조에서 각각 막내였던 우리 네 명은 거친 현장 일을 함께하며 형동생으로 맺어졌습니다. 고된 업무 뒤에 나누던 소주 한 잔, 가족들과 함께 떠났던 캠핑, 아이들이 커가는 과정을 지켜보며 우리는 단순한 직장 동료 이상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각자의 사업소로 흩어져 근무하던 2020년 말, 송년회 자리에서 누군가 툭 던진 한마디가 우리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이제 우리도 나이가 좀 찼는데, 내년부터는 술만 먹지 말고 우리가 가진 전기 기술로 좋은 일 한번 해보자.” 평소 고객 설비를 고쳐주고 싶어도 규정상 발길을 돌려야 했던 미안함을 가슴 한편에 품고 살던 멤버들이었습니다.

“그래, 해보자!”는 외침과 함께, 끈끈했던 우정은 ‘봉사’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습니다. 이런 끈끈한 진심은 주변에도 전해졌습니다. 좋은 일에 함께하고 싶다는 사업소의 동료 3명이 더 합류했고, 이제는 7명이 하나 되어 전북 전역을 누비고 있습니다.



요”라고 답하며 나오는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3 쓰레기 더미 속의 희망

지적장애를 가진 청년의 집을 방문했을 때, 쓰레기 더미 속에서 위험하게 엉킨 전선들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배선을 정리하고 나오며 전기설비 외엔 더 도와주지 못한 미안함에 한참을 뒤돌아보았고 지금도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회사가 맺어준 인연으로 시작해, 이제는 서로의 삶을 지탱하는 버팀목이 된 우리 7명의 단원. 이 끈끈한 우정이 있는 한, 전북본부 전기원 봉사단의 불빛은 결코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얘들아, 100세대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다. 우리 마음 변치 말고 오래오래 같이하자!”



#1 눈물로 건네받은 감사

봉사 현장에서 만난 이들의 눈빛은 우리가 계속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순창군의 한 지체 장애인 할머니 덕이 기억납니다. 시골집 구조상 콘센트가 본체에만 있어, 할머니는 매번 보행 전동차를 끌고 평탄하지 않은 마당을 지나 본체까지 들어오셨어야 했습니다. 대문 옆에 콘센트를 새로 설치해 드렸을 때,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집에 올 때마다 힘이 빠져 힘들었는데 정말 고맙다”라는 말씀 한마디에 ‘이것이 전기기술자로 내가 진짜 해야 할 일구나’라는 깊은 소명을 느꼈습니다.

#2 섬마을에 전한 따뜻한 빛

풍랑으로 배가 뜨지 못해 두 번의 시도 끝에 포기하고 육로로 들어간 선유도와 무녀도의 풍경도 잊을 수 없습니다. 섬마을엔 20년 넘게 근무하며 한 번도 보지 못한 열악하고 위험한 내선 설비들이 가득했습니다. 특히 타지에서 고생하며 배를 타시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합숙소를 방문해 전등을 달아주고 옥내 배선을 정리해 주었을 때, 그들의 눈빛에서 느껴지던 진심 어린 고마움은 우리에게도 큰 보람이 되었습니다. 야외로 노출되어 비 오면 떨어진다는 차단기를 안으로 옮겨드린 후, 수줍게 “얼마냐”라고 물으시던 할아버지께 “무료이니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에피소드

그간의 봉사활동



차단기함 시공, 전등 교체, 옥내배선 교체 및 정리, 콘센트-스위치 교환, 대문에 전등 설치, 지붕 앵글에서 계량기까지 옥외배선 교체, 어르신들 말동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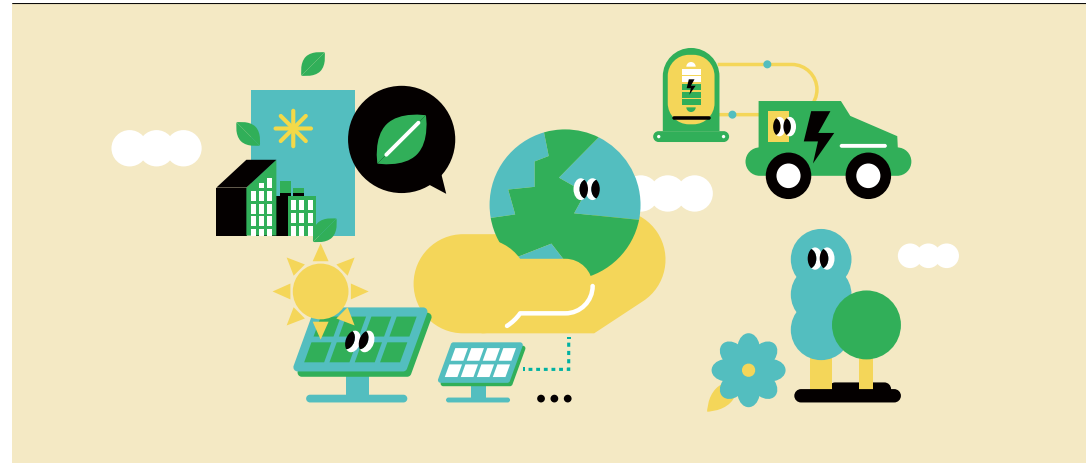
- 2021~2022년 임실군 신평면을 시작으로 완주군 구이면 등 활동 영역 확장
- 2023~2024년 임실, 순창, 진안, 남원, 장수 등 전북 각지 오지 방문
- 2025년 무주, 부안을 거쳐 섬 지역인 선유도와 무녀도까지 총 99세대의 노후 설비 교체 완료



재미있는 낱말 퀴즈



〈KEPCO〉 3월호를 읽고 독자 이벤트에 참여해 보세요.
이벤트에 참여해 주신 독자분들 가운데 10명을 추첨해 상품을 드립니다.



아래 내용을 읽고, 빈칸에 들어갈 정답을 맞춰주세요.

Q1 □□□ □□□□의 대표작 〈빨강, 파랑, 노랑의 구성〉은 삼원색의 색면과 검은 직선이 화면을 과감하게 분할하며, 질서와 균형을 이루는 작품이다.

힌트 'COVER STORY' 참조

Q2 한전의 취약계층 □□□ □□□□ □□□□ 사업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11종의 고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할 때 비용의 일정 비율을 지원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전기요금을 줄여주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복지사업이다.

힌트 'ISSUE 2' 참조

Q3 □□□□은 '신경'과 '형태'가 결합된 단어로, 인간 뇌 자체를 복사한다는 SF적 발상보다는, 수십억 년 동안 진화하며 최적화되어 온 뇌의 작동 원리를 반도체 설계에 모방하려는 기술이다.

힌트 'SCIENCE' 참조

참여 방법 QR코드 스캔 후 답변 제출
접수 마감 3월 20일(금)까지
이벤트 상품 신세계 상품권 2만원권
선물발송일 4월 10일경



이벤트 참여하기

※ 2026년 〈KEPCO〉는 리버스 형식으로 제작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책을 뒤집어 새로운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365일 24시간 전기의 곁을 지키는 사람들



365일 24시간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나라
대형정전이 연간 1건도 발생하지 않는 나라
태풍 피해에도 24시간 내 복구율 99%를 기록하는 나라
세계가 부러워하는 전력선진국 대한민국 뒤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기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시시대에도 세계 최고수준의
전력품질을 지키겠습니다.



지금,
전력이
전략입니다



대한민국의 전기품질은?

정전시간은 주요 선진국 대비 163~731% 수준으로 월등히 낮고
정전 횟수 또한 가구당 연간 0.1회로 세계 최고 수준의 전기품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